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4월 18일(음력 3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624 호

북한산 · 천성산 이어 가야산까지…불교환경운동 미래는?

초기대응 시스템 갖추자

'늦은 대응' 개발논리 못당해…불교환경연대 초록봉사단 조직 계획





오는 10월말 완공예정인 사패산 터널은 현재 입 · 출구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 왼쪽은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운동 당시의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불구하고 관통 결정이 난 북한산 관통도로. 일명 사패산 터널(4.0km)은 현재 입 · 출구부 구조물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말까지 터널 내 포장공사를 마치고 완공될 예정이다. 미 개통된 사패산 구간 7.5km는 오는 11월까지 연결교량 등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12월에 개통된다.

개발의 논리는 지율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정진도, 수경 스님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도 무참히 꺾어버렸다. 이제 광풍은 백제 천년의 미소가 살아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까지 덮쳤다.

1500년 불교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는 가야산엔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등성이가 깊이 패여 고압송전철탑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앞산에 터널을 뚫고,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가야산관통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각종 개발론자들이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지만 저항은 힘겹기만 하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평행선은 결국 목소리가 강하고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늦은 대응'도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먼저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전근대적인 대응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일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예로 들며,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종단에서 해온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대한 노력들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사찰에서 사찰림을 관리하는 산감을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기에 정부예산의 확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불교계가 평소 일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환경마인드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면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마인드가 축적되면 개발 초기에 각 사찰에서 환경위원회에 사안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풀뿌리 환경운동'에 무게중심을 뒀다. 불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선행하고, 전국적인 환경지회 조직하며, 대외 홍보를 하는 3위 일체가 돼야 이상적인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선발하고 4월 12일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 전국 21개 사찰, 7개 환경단체, 6개 교계단체 등에서 16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들에게는 한 달 뒤 환경청장이 주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이 발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들을 환경전문자원봉사단으로 양성한 뒤 불교환경연대 차원에서 전국규모로 조직할 초록봉사단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평상시 초록봉사단을 견고하게 조직해 지역단체와 협조 하에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환경포교를 위한 대안이자 지름길"이라고 내다봤다.

김원우 · 김주일 · 남동우 기자

제1기 독자위원회 위원 위촉

손재현(동국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상호**(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연구원), **김재복**(고성동중학교 서무실), **김남기**(원주 성불회 포교부장), **김시열**(도서출판 운주사 대표), **최임배**(도서출판 학지사 편집부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민정희**(사단법인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이남숙**(현대불교 신수회 회장), **김민자**(수필가) 〈무순〉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영축총림 방장 추대식
22일 통도사 설법전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추대식이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원명 스님은 지난 3월 6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됐다. 남동우 기자

나라 · 민족위한 기원법회
종단협, 30일 롯데호텔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민족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된다. 김원우 기자

'불자대상' 후보 접수 받아

조계종이 제4회 불자대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스님(말사의 경우 교구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과 조계종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있다. 이 외에도 총무원 총무부장의 동의를 받을 경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추천서류 및 공적사항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총무부(02-2011-1706)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사고

본사 계좌 변경 안내

2007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용계좌 중 일부가 (주)에이치비엠씨로 명의 변경됐습니다. 아래의 계좌를 제외한 기존의 (주)현대불교신문사 명의의 사용계좌는 해지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및 법보시 2004-8212 (고객팀 : 김경숙)
국민은행 : 245-25-0001-461
농 협 : 053-01-269050
광고 2004-8213~6 (영업팀: 김학표)
국민은행 : 222-25-0005-381
농 협 : 053-01-269088
쇼핑몰, 여시아문 2004-8219 (여시아문: 박원범)
국민은행 : 023-25-0007-617
농 협 : 053-01-269062
후원 2004-8237 (담당: 고영배)
국민은행 : 038-25-0008-365
기타
우체국 : 010579-01-004005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발족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미산 스님 '바른 앎 행복의 출발점'
4월 25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I love Buddha / 어리석음

용정운(www.zentoon.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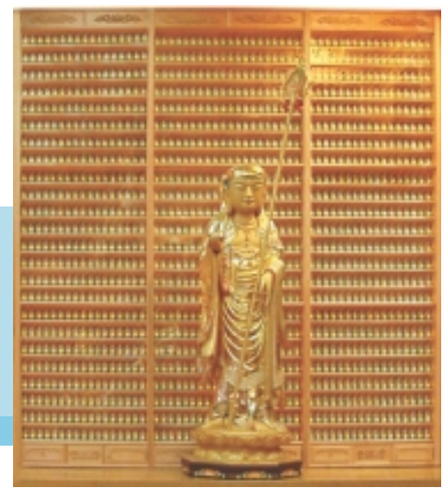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 단 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1할의 새싹심기…불교미래 어둡다

포교원 설문조사, 전국 1717사찰 중 어린이법회 운영 180곳…本寺는 절반만

법회시간 일요일 오전이 가장 많아…교구 교재 개발 · 동영상 자료 절실

●어린이법회 운영 실태

조계종 사찰 10곳 중 1곳만 정기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구본사 절반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수덕사 교구에서는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한 곳도 없었다. 어린이법회는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20~30명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이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계종 사찰 171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직접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조계종 사찰 1717곳 중 180곳(10.48%)에서만 정기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중 약 50% 정도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어린이회 카페를 개설 ·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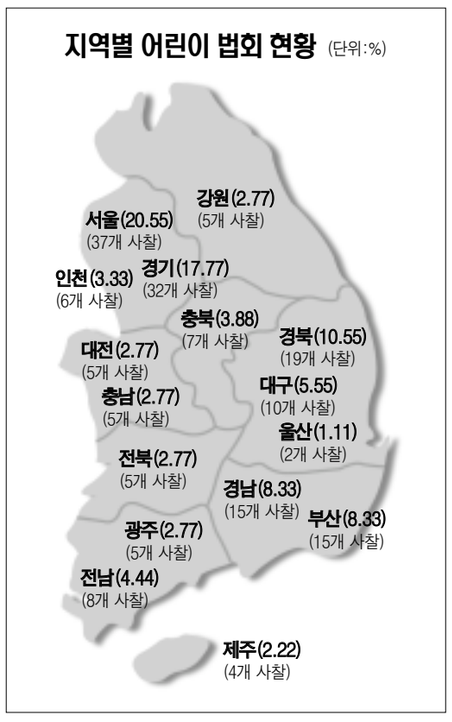
어린이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찰 14.5%는 산중, 섬 지역 등 환경적 조건으로 인한 참여 어린이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2.09%는 정기적인 어린이법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여름 · 겨울캠프(불교학교), 한문학당,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0.87%는 지도자 문제, 재정적 문제 등이 해결되면 다시 어린이법회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5개 교구본사 중 절반가량인 13개 본사에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48곳(26.66%)으로 가장 많았고, 군종특별교구 17곳(9.44%), 통도사 14곳(7.77%), 용주사 12곳(6.66%), 송광사 10곳(5.55%) 순이었다. 이에 비해 수덕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월정사 · 화엄사 · 선운사는 1곳, 신흥사 · 금산사 · 백양사 · 관음사는 2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7곳(20.55%), 경기 32곳(17.77%), 인천 6곳(3.33%) 등 어린이법회 41.65%(75곳)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어린이법회 때 20~30명이 참석한다고 대답한 사찰이 54곳(30%)으로 가장 많았다. 10~20명도 34곳(18.88%), 10명 미만도 8곳(4.44%)이나 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100명 이상도 8곳(4.44%) 있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대부분의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직장인,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다. 평균 2~3명의 교사, 보조교사들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의 80%정도에 자원봉사자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몇몇 지도자들은 10~30만원 정도의 보시금 또는 차비를, 대학생들은 학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법회는 주로 일요일 오전에 한다. 어린이법회는 교사회의를 통한 월간계획에 따라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 · 고학년 수준별 반별수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찰이 수련회 및 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평균 2 · 3배 정도 많다.

어린이법회를 지원하는 동문회나 자모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찰은 거의 없다.

●무엇이 필요한가?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손꼽았다. 어린이 지도를 위한 공통 교육계획안과 같은 교수자료가 필요하며, 다양한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어린이법회 지도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해주는 지도자 지침서와 체계화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책자도 필요하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불교성전 및 불교를 접목시킨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 아이들의 수준별로 쉽게 설명된 찬불가 반주용 악보도 필요하다.

토요 학습 체험 교실을 실시하는 등 아이들이 찾아오는 사찰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생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수급을 위해 구인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한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해 지도자 자질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지도자들간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선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관음사 산중총회 중지결정

중앙선관위, 호법부에 고발키로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열린 제175차 회의에서 "제174차 회의에서 4월 7일까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수정공고를 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관음사 교구가 이를 미시행했다"며 선거중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관음사 교구는 주지 후보자가 '제23교구(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불교신문에 공고했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음사 교구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 10년만에 재개원

승가 · 불교학과 118명 입학…박성배 교수 초청 특강도


4월 16일 10년만에 재개원한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입학생들.

1997년 묘각사 화재로 문을 닫았던 관음종 종립대학인 서울불교문화대학이 10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4월 6일 서울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승가학과 학인 스님 60명, 불교학과 학생 58명 등 총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불교문화대학 입학 및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 교육(2년제)이며, 불교학과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1년간 교육한다.

서울불교문화대학 학장인 홍파 스님은 입학식에서 "2007년을 관음종 교육원년으로 정하고 서울불교문화대학의 교육불사에 모든 원력을 다하겠다"며 "짧은 기간 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입학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이 배우겠다는 발원을 크게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불교문화대학은 4월 14일 박성배(뉴욕주립대 한국학) 교수를 초빙해 '몸과 몸짓의 논리(體와 用의 論理)'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앞으로도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강할 수 있는 특강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현직 국무총리 첫 조계종 공식 방문

한덕수 총리 지관 스님 예방 신임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덕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인사차 4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현직 총리가 종단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무총리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북한 핵문제, 한 · 미 FTA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랜 공직 경력으로 보아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하며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 축소 모형품을 선물했다. 남동우 기자

무량종 창종 8주년

칠보정사에서 기념법회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4월 8일 총본산 하동 칠보정사에서 창종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종법회에서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질만능으로 정신문화가 타락한 현시대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교화에 앞장서는 종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보정사는 지역노인 500여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청암사 비구니 율원

18일 개원법회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가 4월 18일 오전 11시 자양전에서 비구니 율원 개원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율장 연구와 율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될 청암사 비구니 율원은 180여 평 규모로 지난해 건립됐다. 2년 과정의 청암사 율원은 <사분율>, <선원청규>, <범망경>, <사미니율의> 등 율장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청암사 율원에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에 한해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쳐 입방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학년별 5~7명이다. 김원우 기자

위원 위촉 · 사무실 개소

한국전통사상 서간행위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 총무원장) 사무실이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열었다. 간행위는 이를 계기로 간화선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 정수가 담긴 전통사상서를 영역해 세계에 알리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이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 간행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간행위원은 사상서 번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한국불교에 이바지하고 본인 연구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 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고담녹월』에서 禪의 진미를 만끽하세요!
"선지식의 최상승 법문이 귓전을 스쳐 지나가도 다겁생의 업장이 녹고 성불의 인연을 심게 돼"



선종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당법어 총 81칙!
- 경허 – 혜월 – 운봉 – 함곡 선사로 내려오는 부처님의 혜명을 79대째 면면히 잇고 계신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 동화사와 해운정사, 조계종 기본선원의 조실로 계시면서 결제 · 해제 법회에서 설하신 상당법어 총 81칙으로 구성
-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베풀어 놓은 가장 고준한 공안 법문을 엄선하여 큰스님의 정안(正眼)으로 일일이 점검하신 사자후
- 선(禪)을 참구하는 모든 이에게 바른 참선법과 바른 깨달음의 표준을 제시한 참선 수행의 지침서
- 경허 선사 이래로 법을 전하는 친필 전법게와 태고 보우 국사로부터 이어진 법맥을 스승이 직접 써서 내려준 등등상속(법맥도) 사진 수록

최고봉에 올라서야 모든 산봉우리가 다 내려다보인다. 고담녹월은, 마조 선사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선(禪)의 구경의 경지를 깨달아 항곡 선사로부터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선법을 부촉받은 진제 선사께서 현추만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내 놓은 법어집의 완결판이다.
선종 시상 유례가 없는 상당법어 총 81칙으로 구성된 이러한 역작을 당대에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확철대오한 깨침의 경지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선 법문을 통해 선(禪)의 진미(眞味)를 맛보게 된다.
이 법어집을 늘 가까이 두고 보면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여 모든 분들이 '참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 전국 서점에는 '옛 뭇에서 답을 건진다'라는 한글 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신국판 / 황금색 비단양장 / 485면 / 값 20,000원

구입문의 : 전국 불교서점 및 대형서점, 해운정사

BTN 바른 참선법을 지도한 진제대선사 영상 법문!

제1회 : 불교TV 초청대법회-해운정사 (불기 2550년 11월 12일)
혜월 선사 · 진제 선사의 오도와 전법
부처님의 최고의 관문

제2회 : 불교TV 무상사 초청대법회 (불기 2550년 11월 19일)
운봉 선사의 오도와 전법
향상의 일구 · 활구와 사구

제3회 : 불교TV 무상사 초청대법회 (불기 2550년 11월 26일)
향곡 선사의 오도와 전법
올바른 참선법

제4회 : 병술년 동안거 동화사 결제법회 (불기 2550년 12월 5일)
경허 선사의 오도와 선법 선양
중국의 명안종사를 참방하여 점검함

별 매 : 병술년 동안거 동화사 해제법문 – 성철 선사와 진제 선사의 거량


[비디오 테잎]
정가 : 낱개 15,000원
(4개 세트 : 50,000원)


[DVD] 4장 세트
정가 : 40,000원


[카세트 테잎] 4개 세트
정가 : 12,000원


성철선사와 진제선사의 거량
[VHS / DVD / 카세트테잎]

구입문의 : 해운정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0 Tel: 051.746.2256 / 4812 www.seon.or.kr)

총본사 건립운동 불교계 자주운동 결정판

지암불교문화재단 '지암 이종욱…' 세미나 개최

"지암 이종욱 스님의 주도로 추진된 총본사 건설 운동은 1920년대부터 추진된 불교계 자주운동의 총 결정판이었다."

(재)지암불교문화재단이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암 이종욱의 독립운동과 조선불교 조계종' 주제의 제1차 학술세미나에서 안후상(고창북고)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불교 총본사 건설과 이종욱'을 주제로 발표한 안씨는 "총본사 건립운동이 불교계의 자주적인 통합기조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부응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불교계가 1920년대부터 끊임없이 통일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정교한 식민지 정책을 편 일제가 불교계의 큰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 불교계의 상승된 위상에 걸맞게 통합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불교계 내부의 함의가 일제의 불교계 통합 의도를 확인하면서 촉발돼 나타난 측면도 있다는 것.

안씨는 "일제의 민족 말살기에 한국의 분립된 전통 불교를 근대화된 종단으로 통합,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민족적 성과"라며 "한국 전통의 총본사 대웅전의 건설과 더불어 '조계종'의 출범은 민족사의 정체성을 지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차장(조계종 기획실)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현희(성신여대) 교수가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김광식(부천대) 교수가 '조선불교 조계종과 이종욱'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창수(동국대 명예교수),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조기룡(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씨가 참여했다. **김원우 기자**

"전통사찰 이중규제 철폐돼야"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도심공원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도시공원법에 묶여 인터넷 전용선도 쓰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것이 하루 1만여 명이 방문하는 강남 봉은사의 현실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골프장은 만들 수 있고, 사찰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령에 의해 건축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사찰의 현실을 짚어보고, 법령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국가 불교정책 전반을 살피고 법적 ·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현장.

이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전통사찰의 현황과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찰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중첩적 규제로 인해 사찰 건축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불교계에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사찰이 건축, 법률, 생태 전문가를 포함하는 '불사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불교계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가지가 있다. 전통사찰의 대부분이 산림관리법이 적용되는 '공익용 산지'에 위치하고, 도심 사찰의 경우도 '도심공원법'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상 자유로운 건축 활동이 가능한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복원불사 외의 신축불사를 할 수 없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증 · 개축이 가능하다.

지정토론에 참가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도심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봉은사는 불자들의 신행 공간, 스님들의 주거 공간, 방문객 주차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신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주차공간이나 불법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특별법 제정으로 불법 건축물을 구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환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 또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는 불법(不法)"이라고 전제한 뒤, "사찰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중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령 기자**

상생 · 포용의 길 모색

영통포럼, 19일 토론회

천태종 영통포럼(회장 무원, 천태종 사회부장)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의 결실을 조속히 이루어 내기 위해 4월 19일 오후 1시 30분 청주 명암타워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상생, 포용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형섭 회장(충북새터민공동체봉사회)이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정아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애로요인과 상생협력방안', 임을출 연구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건설 구상과 지역발전'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김원우 기자**

영어로 '경허'를 읽는다

조계종출판사 영문 '경허집' 펴내…행장 · 선시 등 담아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경허 스님의 법문과 선시를 담은 경허집 영문판(The Collected Writings of Gyeongheo)이 출간됐다(사진).

경허집 영문판은 각각 250쪽이 넘는 산문집과 시집 2권 1질로 구성됐다. 시집은 5언 절구, 7언 절구 등 다양한 형식의 한시와 오도송, 행장 등으로 구성됐다. 산문집은 법문, 서문, 스님들과 편지, 선사들의 행장 등이 실려 있어 경허 스님의 사상과 당시 불교계의 정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영문판은 통도사 극락선원 명정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경허집〉을 모본으로 박영의 명예교수(충남대 영문과)가 번역했다. 감수는 매티 베게하우프트(미국 미시건대 한국학 박사과정)와 미국 UC버클리 종교학 박사 출신인 법진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이 맡았다. **남동우 기자**

TIP 경허 스님(1846~1912)은 휴정 스님 이래 한국 근대 선(禪)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유불선에 통달했으며 한암, 만공, 수월, 혜월 등 걸출한 선사들도 많이 배출했다.

충북언론호법단 출범

충북불교총련, 감시활동 다짐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3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언론호법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언론호법단은 정기적으로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종교편향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장에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혜철 스님. **여수령 기자**

"금강산 성지순례 떠나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금강산 성지순례 상품판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금강산 성지순례상품을 독점 판매한다.

문화사업단은 "4월 6일 (주)현대아산과 '금강산 성지순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며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상품을 불교계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판매하게 된다"고 11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를 계기로 불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알찬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 유적지 발굴과 신행중심의 성지순례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문화사업단은 법기암터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대종사의 정진 오도성지를 찾아내 순례코스화 했다. 또 기도와 수행을 겸할 수 있는 성지순례상품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금강산 성지순례를 원하는 불자는 문화사업단(02-2011-1859)에 신청서와 사진 1장만 제출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조계종복지센터 6월말 완공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센터가 6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스리랑카 복지포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스리랑카 파살라 지역에 진행 중인 조계종 복지센터 건립공사가 현재 건물 기둥 및 벽면건설이 완공되고 지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6월말 완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의 구호활동 및 복지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4월 9일 밝혔다.

2004년 쓰나미 피해로 발생된 고아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주를 이루는 조계종 복지센터는 2만5000평의 대지에 약 600평 규모로 고아동(5동), 행정동, 직원숙소, 유치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5개 동이 지어질 고아동에는 최대 50명 이상의 어린이들 수용이 가능하다.

이에 건립주체인 현지 별도법인 '한-스 문화사회복지재단'은 내달 중으로 복지타운에 필요한 직원 채용과 기자재 구입 및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준공식은 9월초에 열린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몽골 등에 해외봉사자 3명 파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이 몽골과 스리랑카의 복지사업 현장에 3명의 NGO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조길현(28)씨는 몽골에, 이승아(28) 최성호(27)씨는 스리랑카에 각각 파견된다. 이들은 4월 중순 경 출국해 1년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해온 몽골 우물개발사업과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을 돕는다. **여수령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선종부흥·부인선원 면모 보여주는 자료

법진 스님 '중앙선원 안거방함록' 최초 공개

"중앙선원 <안거방함록(安居芳啣錄)>은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확립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던 청정 수좌들의 의지와 선종부흥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다."

4월 7일 서울 정법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제1차 월례발표회에서 '선학원 중앙선원 <안거방함록>과 선종부흥'을 발표한 법진 스님은 1997년 발견된 <안거방함록>을 최초로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

<안거방함록>은 97년 선학원 중앙선원 3층 법당에서 발견된 2권의 책을 일컫는다. 1권에는 1934년 동안거부터 1942년 동안거까지, 2권에는 1942년 하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의 안거 참여자와 소임자가 수록되어 있다.

<안거방함록>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재가 여성 수행자의 명단이 출가수행승의 명단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진 스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권에 기록된 안거 참여 대중은 수좌 302명, 재가여성 55명이며 2권에는 수좌 351명, 재가여성이 148명 동참했다. 하지만 부인선원의 안거는 1949년 동안거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한국전쟁 후에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안거방함록> 기록 기간 중 참여 대중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34년 동안거와 35년 하안거, 동안거 기간인데 이때는 각각 선학원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인가받은 해(1934년)와 제3차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가 열린 해다. 이후 안거 동참자 수는 점차 감소되다가 평균 15명으로 유지된다.

법진 스님은 "3차 수좌대회에 참여했던 69명의 비구 가운데 14명이 중앙선원 안거에 참여했다는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 선학원은 전국 선원을 대표하는 중심이자 선종부흥의 구심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같은 기간 운영되었던 다른 선원에 비해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현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안거를 하고 각 지역 수좌들을 결집하는 실질적인 행정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재가 여성 수행자 명단 포함 실천수행 지침도 담겨 있어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스님은 "<안거방함록>은 근현대 한국 불교계의 동향과 선종의 정체성과 중흥의 면모뿐만 아니라 실천수행의 지침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한편,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논평에서 지적한 '결재 대중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당시 방부를 들였던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중앙선원의 규모가 매우 작아 15명 정도가 생활하기에 적정했지만, 서울에 종무를 보러 온 스님들도 동참해 선방에는 늘 30~40명이 함께 수행했다"고 회고했다. 여수령 기자



TIP 방함록이란?

방함록(芳啣錄)은 결제 기간 중 선원에서 안거하는 스님들의 안거 년도와 법호, 법명, 나이, 소속 교구본사, 소임 등을 적어 두는 기록을 말한다. 방함록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선원의 역사와 규모, 수행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하부 건물지 부도 등 조사 서산 보원사지 2차 발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4월 17일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서 개토제를 개최하고 2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발굴조사는 사역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사찰의 범위와 구조,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기 위해 2017년까지 진행된다.

2006년 진행된 1차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방형건물지가 확인됐으며, 보원사삼보(普願寺三寶)명 암키와, 용문(龍紋)암막새, 청동정병 등이 출토됐다.

이번 2차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아래에 놓여진 하부 건물지와 부도, 탑비 주변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출토유물을 전시하고 발굴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전시관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다.

백용성 조사 입멸 67주기 맞아 금강경 3만권 무주상법보시

백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불심 도문)는 4월 11일 용성조사 입멸 67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대재에서 불심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조사께서 직접 금강경의 제목과 대의·대요·대개와 32분의 각분을 상세히 해설한 <상역과해 금강경> 3만권을 발간하겠다"며 "전국 1만여 곳의 사찰과 강원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 무주상법보시로 배포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대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정협의회 총정 석가산 스님과 광주 무각사 한주원두 스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원우 기자

도갑사 대웅보전 상량식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4월 8일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과 김일태 영암군수,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우 스님은 "세월의 풍파 속에 당우가 낡고 기울어져 원형을 유지하게 어려워 신축불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불자들을 위한 여법한 신행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갑사는 최근 2년간 일주문 현판식과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한데 이어 대웅보전 신축건립 및 천불조성 봉안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061)473-5112 고영배 기자

월정사 수재민 돕기 축구대회

스포츠로 주민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해왔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제3회 월정사 주지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 전국 걷기명상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마련한 '전국수행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의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걷기명상 행사는 4월 22일 마곡사를 시작으로 28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공원, 29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5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된다.

건전한 수행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걷기명상은 수경스님(화계사 주지)이 증명법사를, 자비명상 지도로 유명한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사진)이 진행을 맡는다.

4월 29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오전 11시 희망법회를 봉행한 후 가족놀이, 공동체놀이, 빈그릇 운동으로 실천하는 점심공양,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만원. 참가는 마곡사(041-841-6221) 해운대 동백섬(051-853-2021) 임진각 평화누리공원(02-733-7277) 월정사(033-332-6664)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령 기자

4월 29일 오전 9시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축구대회는 월정사 스님들과 지역 종교인 또는 단체장과 시범경기에 이어 본경기가 진행된다. 이날 수재민들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참가자들이 수해성금을 기탁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대흥사 지역 어르신초청 잔치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가 서산대사 탄신 487주년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경노효친 전통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해남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대흥사는 4월 14일 문수·보현전 야외공연장에서 서산대사 탄산 487주년을 맞아 해남읍을 비롯해 14개 읍·면 어르신 2000여명을 초청, 국악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국악마당 놀이극과 단막 마당극, 각설이 굿 등의 공연이 열렸으며 행사참석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 및 음료와 과일 등이 무료 제공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지역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짓기대회가 열렸다. 김원우 기자

교육 진행 자원봉사자 모집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가를 모집한다. 봉사자는 여성리더십교육과 행복가정지킴이 등의 교육사업을 돕게 된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전공도 살리고 봉사도 하고 '얼쑤'"

금강대 학생 23명 농촌 명예교사로 선발

외국어·상담·부진학생 지도 등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성낙승) 재학생 23명이 논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07학년도 대학생 교육 도우미제' 명예교사로 선발돼 4월 11일부터 소규모 8개 초·중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대학생 명예교사들은 4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22회(각 학기 11회씩)에 걸쳐 논산시 소재 초·중학교에 파견돼 맞춤식 지도를 펼치게 된다. 파견 학교는 연산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노성중학교 등 여섯 곳이다.

특히 금강대 재학생 명예교사들은 통역(통상통역)과 사회복지 등 자신의 전공을 살려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와 부진아 학습지도, 교과지도 및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정원(통상통역 일어전공 2학년) 학생은 "전공을 살려 학생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교육 도우미제는 도시·농촌 간의 교육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학업 및 특기·적성교육, 특별보충과정,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김원우 기자

청각장애 학생들 트레킹 템플스테이

내소사, 전주선화학교 학생·교직원 초청

내소사에서 청각장애아들이 수학중인 전주선화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트레킹템플스테이를 연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는 선화학교 학생 90명과 교사 30명을 포함 총 120명을 초청, 4월 27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변산반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자연생태와 내소사의 유래에 대해 학습하는 직소폭포 트레킹을 실시한다. 또 수행자들의 전통 식사법인 발우공양과 연등 만들기, 내변산 직소폭포 트레킹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거동이 불편한 10여명의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도와 염주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소사는 그동안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선화학교 학생들에게 낸 희망과 용기를 북 돋아주는 메시지와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진원 스님은 "트레킹템플스테이가 선화학교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원명 지종 방장 추대식

영축총림 제3대 원명 지종방장 추대식을 봉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4월 22일 (음 3월 6일) 오전 11시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방장 추대위원회 위원장 산 옹 합장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⑨ 운학산 봉선사

숲·연꽃 있어 신나는 '寺村 사이'

세조의 원찰로 조선시대 교종의 총본산인 봉선사는 한글과 인연이 깊은 절집이다. 많은 절 마당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한글 주련과 편액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운허 스님이 1970년 대웅전을 세우면서 편액을 '큰 법당'이라고 새겨서 달았다고 한다. 주련에 씌어진 글씨를 곱씹으며 깊은 도량에 빠져 보았다.

온 누리 티끌 세어서 알고
큰 바다 물을 모두 마시고
허공을 재고 바람 얽어도
부처님 공덕 다 말로 못하고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대중들의 깜깜한 눈을 밝혀 준 스님이 진정한 법시를 한 것 아닌가. 아무나 무시로 드나들 때마다 읽고 진리를 구하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처소에 따라 그 곳에서의 주인이 되라'는 스님의 온화한 가르침은 불자들 가슴 속에 법향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운허 큰스님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한자경전 한글화 불사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남달랐다.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육을 담당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봉선사와 말사 5개 사찰 임야 전답을 정리하여 광릉숲에 광동중학교를 설립하고 산골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봉선사 일주문을 지나 산문 입구 부도밭에서 모자를 쓰지 않은 춘원 이광수 선생 시비를 볼 수 있었다. 운허 스님의 8촌 형인 이광수 선생은 한학당인 회보재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춘원 선생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내 삼종제와 함께 구풍한시 짓기를 내기했으나 언제나 내가 졌다. 그는 무엇이나 나보다 재주가 승하였다. 그러나 내가 백을 대할 때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구겨짐 없이 쭉 펴인 천진난만한 성품이었다."

한 때 이광수 선생은 광동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며 '죽은 새' 등 몇 개의 작품을 썼다. 그리고 광동중학교 교가를 작사해 주어서 지금도 학생들에게 불리고 있다. 봉선사는 불심으로 사하촌 사람들 마음을 다스리고 교육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는 든든한 이웃이었다. 청소년 시절 광동학교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꿈을 꾸며 자랐다는 강성희 부평리 이장이 늘 절집의 고마움을 느끼며 산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집성촌이 아닌데도 사하촌을 이루고 살게 된 배경은 몸으로 벌어먹기 좋은 곳이라서 하나 둘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땅은 없지만 절집의 산판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기는 수월했고, 주변에 왕릉이 있어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지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운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여 계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승적을 얻기도 했고, 계를 받지 않고 법사로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나는 절집 아랫마을에 살지만 마음은 절집에 두고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요즈음은 봉사하는 것도 신도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절집에 가서 스님들과 밤을 새우며 놀고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산세가 좋은 곳에서 50여 호가 어울렁더울렁 사는 아름다운 마을에 한 차례 천재지변이 지나갔다고 했다. 1963년 9월 13일 수해를 입어 마을 사람 4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개천 옆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요. 땅이 없으니 광릉쪽 음식점에 다니며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난리를 만나 가족을 전부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선사 입구의 부도밭. 춘원 이광수의 기념비가 있다.

마을이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절집도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망자를 위한 재를 지내주며 마을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절집은 마을 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큰 수해로 마을주민 상심할 때 절집서 망자 재 지내주고 위로 연꽃 축제 등 통해 수입 모색


부평리 전경.

운학산 자락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마을 사람들은 복 받았다는 말에 감춰 두었던 마음을 꺼냈다. "우리 마을은 자연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어렵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에 수목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풍 나오는 학생들은 많지만 가족단위 나들이가 되어야만 식당에도 손님들이 북적일 텐데 그것이 아쉬움 입니다. 또한 수목원이 5일 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산림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폐쇄된 등산로도 개방해 주고 휴일에 수목원 문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주말농장을 하고 있지만 식물 자라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주차시비를 벌이다 법정으로 가는 도시의 삭막한 현실을 회복하는 길은 자연과 가깝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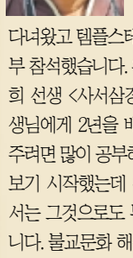
지금 구리시에서는 수목원 환경 문제를 위해 우회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 이장님은 마을 앞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서어나무와 잣나무 숲길 그리고 광릉 노송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걷기에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거나 소달구지를 태워주는 색다른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 수입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작년부터 봉선사 주차장에서 5월 새싹이 돋을 때 광릉숲 문화축제를 열어 산림문화를 보급하고 주민들과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 숲 해설가가 나와서 나무 지식을 가르쳐 주고 주민들이 먹을거리 장터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봉선사 연지를 개방하여 연꽃 축제를 열기도 한다. 초파일에는 마을 주민일동으로 화환을 보내고 연등도 달고 있다는 이장님 말에 불심을 짓는 사람들 마음이 정토라는 생각을 해본다.

봉선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문화재 해설사 **이희성** 포교사

불교문화해설사 과정없어 봉사자 많지 않아 아쉬워



범종각 앞에서 법등 이희성 포교사를 만났다. 그는 문화재 해설사라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다.

"7년 동안 총림 5군데를 다녀왔고 템플스테이와 법회 등 수련 법회를 전부 참석했습니다. 유교 건축물이 많으니까 성백희 선생 <사서삼경>도 읽고, <주역>은 대안 선생님에게 2년을 배웠습니다. 건축물 설명도 해주려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40년 전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해설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사찰> 등 책을 보았는데 한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체험을 하기위해 25교구 본사 답사와 서원, 왕릉을 두루 다녔습니다.

문화재 해설을 하면서 아쉬움이라면 절집 큰 법당 앞에 보면 군사문화 때문인지 전각이 잘려나가고 운동장을 넓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증에 의해서 전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구 불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불교문화를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스님들은 수행을 하고 포교사들이 불교문화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종교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불교 공부가 기본으로 갖춰진 다음 문화재 해설사로 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면 불교문화 해설사가 되는 과정이 없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설사로 나왔다가 질문을 수용할 지식이 없으면 봉사를 그만 두게 됩니다. 우리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지식을 갖춘 해설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문



정지용 문학상 수상

오현 신흥사 회주 스님이 4월 12일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12일 오후 2시30분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열린다.



만공 선사 다례 및 주지진산식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만공 대선사 탄신 136주년 다례 및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041)337-6565



반야전 낙성 · 점안식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4월 14일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증명법사로 금선사 반야전 낙성식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장애인의 날 특강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은 4월 20일 한국인지과학연구소 여문환 소장 초청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을 개최한다.(02)421-6077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임명

정수 스님이 4월 12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영랑시문학상 수상

고은 시인이 4월 10일 계간 <시와시학사>가 주최하는 영랑시문학상 5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21일 제2회 영랑문화제 일환으로 개최된다.



대불련 22대 회장 취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전보삼 교수는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동국대 일산병원 이명묵 원장은 4월 19일 오후 1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전립선질환을 주제로 건강강좌와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031)961-7440

재정 투명 · 공정한 종무로 발전 틀 다질 터

조동종 신임 총무원장 덕우 스님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실천종단을 만들겠습니다."

4월 9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열린 조동종 제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덕우 스님(도선사 주지 · 사진)은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조동종은 한국에서 묵조선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종단"이라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바 중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종도들에게 종단의 주인임을 자각시키고 21세기 한국불교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종단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명정대한 종무처리로 약진하는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덕우 스님은 1970년 서울 사간동 불이성 법륜사에서 보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71년 정안 스님에게 사미계, 79년 덕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74년 법륜사 강원, 76년 선암사 강원을 졸업했다. 스님은 총화종 재무국장과 포교부장을 거쳐 조동종 교육원장 감찰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이다. 저서로는 <불자의 마음> <심지없는 등불> <한줄기 향처럼>등이 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행봉, 총무원 부원장 통원, 중앙감찰원장 덕성 스님과 국회의원 박진, 조동종 신도대표 금정웅씨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문화재 제자리찾기 필요"

불교중앙박물관 초대 관장 범하 스님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불교중앙박물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보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개관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불교중앙박물관을 2년간 이끌어갈 초대 관장에 범하 스님(사진)이 4월 10일 임명됐다. 범하 스님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는 문화재 전문가다.

지관 스님은 이날 범하 스님에게 국립중앙박물관과 반환 논란을 빚고 있는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과 관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불교계 반환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범하 스님은 "해당 유물은 명백히 불국사 소유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불교계 소유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고, 더 나아가 해외에 유출된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4월 중순 경 진행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사단 실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내에 상설 ·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불교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젊은층에 '생명나눔' 인식 확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



"올 한 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생명나눔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임명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정복자 신임 사무총장(사진)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2007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장은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청년회장, 남양주 봉선사 사무장,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을 역임했다.

정 총장은 △뇌사자 장기기증 확대 △지속가능한 후원 증대 △환자지원 사업 모색 △중앙과 지역의 연계시스템 확립을 네 가지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시신 기증에 치우쳐 있는 기증 방향을 뇌사시 장기 기증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사찰 · 종단 등을 중심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생명나눔운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처리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무자들과의 든든한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대외 홍보에도 주력해 생명나눔의 참 뜻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정관 및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회원모임과 수혜자모임(가칭)을 통한 회원 결속력 다지기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 총장은 "실무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총장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강좌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4월 10일 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관장 스님 취임 기념 시사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4월 1일 3대 관장에 취임한 일문 스님은 이날 강의에서 "삶과 죽음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리더십 교육 개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개최하는 제2기 여성불자 리더십 교육이 4월 11일 개강했다. 50여 명의 여성불자들이 등록한 2기 리더십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인자 前 불교여성개발원장은 "지혜와 자비로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월례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4월 11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행복한 부부 성 상담'을 주제로 월례특강을 개최했다. 불자상담원과 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김홍숙 비엔성건강센터 소장은 "부부의 성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이성수 차장 불기협 새 회장



한국불교기자협회는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13대 회장으로 불교신문 이성수 차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성수 회장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회장으로는 법보신문 남배현 차장과 만불신문 서현욱 차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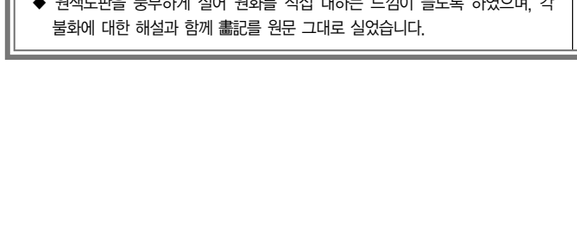
운암 김성숙 서거 38주기 추모제 봉행



추모제가 4월 12일 서울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행됐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 유찬수 지청장, 광복회 남만우 서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혹여 태허 스님의 영가가 극락에 가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며 "뒷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극락왕생 하시어 편하게 쉬시라"고 태허 스님 영전에 고했다.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한국의 불화(40권) 전시 · 판매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여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각지에 산재한 불화들을 한데 모아 집대성한 것은, 여러 뜻있는 불자님들의 원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한국 불교출판사상 최대의 불사임을 자부합니다.
그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완간기념회 및 석정연묵전을 마련하였사오니, 많이 왕림하시어 대작불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장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판 형 : 가로 257×348mm(타블로이드판형)
면 수 : 각권 250쪽 내외(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수록불화 : 3,156점(1950년 이전 작품)
발 행 처 :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24개 본사 476개 사찰과 국공립 · 사립 · 대학 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40권 완간기념
석정연묵전 石鼎硏墨展
일시 : 2007. 4. 21(토) 15:00~4. 27(금) 15:00
장소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3층전시실



『한국의 불화』 완간기념회
일시 : 2007. 4. 21(토) 15:00
장소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

문의 / (사단)성보문화재연구원 ☎ (02) 701-6830, 6832 팩스 (02) 702-6831 www.sungbo.re.kr

불모석정스님의 선서화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불교방송, 불교TV

여수사암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동참

대해·자비 만났으니 (大海)
'여수 코리아' 파이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거북선 대축제' 현장

해마다 열리는 거북선 축제(진남제)이지만 올해는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박람회 기구(BIE) 실사단에 맞추어서 열렸기 때문이다. 여수시민들이 카르맹 실뱅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실사단에 보내는 환영의 열기는 뜨거웠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전란이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영 본영이 있었던 지금의 여수시였다. 이 역할로 전라도가 보존되었고, 조선은 국력을 회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호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충무공 이순신이 사헌부 지평현덕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선 때 왜구의 남서해안 노략과 침략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1000회 이상이라고 한다. 전쟁에 참여한 수군과 백성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남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그 명칭을 '거북선 축제'로 바꾸었다.

여수사암연합회에서도 거북선축제에 동참했다. 4월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통제영 길놀이'에 석천사, 흥국사, 향일암, 가림정사, 청량사, 쌍용사, 해광사, 달마사, 한산사 등의 사찰들이 참여했다. '통제영 길놀이'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그 역사를 재연한 것으로 거북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의승수군행렬에는 각 사찰의 스님 20명과 승군 복장을 한 남여 100명이 참가하였다. 100명의 승병들이 칼을 비롯한 무기 대신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연등을 드는 것은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전쟁을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의승수군행렬은 스님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불교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또 400년 전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대형 연꽃등을 앞세우고 각 사찰의 신도들 400여명도 연등행렬에 참여하였다. 특히 석천사 불자들로 구성된 바라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거북등, 연꽃등, 수박등, 잉어등에 환하게 불을 밝힌 행렬이 어둠을 가르고서 지나가자 사람들의 환영 또한 열렬했다.

다음 날 12일 오후 2시 해양공원에서는 '수륙고혼천도대재'가 열렸다. 이번 수륙대재는 전과는 좀 다른 형식을 취했다. 순수불교행사가 아닌 실사단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륙재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여수사암연합회에서는 초록색 모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실사단들이 아직도 어제의 감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제영 길놀이에 참가해준 불교계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며 "평화를 상징하는 수륙재가 이렇게 열리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2012여수 세계박람회는 꼭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 중앙에는 흥국사 대웅전의 관세음보살탱화를 그대로 그린 괘불탱화가 걸렸다. 여수사암연합회회장인 명선 스님이 무주고혼들을 위해서 또 여수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서 촛불을 밝혔다.

올해는 영가들의 위패 대신 노란색 리본에 영가를 적거나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행사장 부근에 달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노란색 리본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그리고 컵등 만들기와 탁본 체험행사도 열리고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카르맹 실뱅 집행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10조 원 이상의 생산과 8만8000여 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지기를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스님 20명 '의승수군행렬' 참가 눈길
400여 불자 참가한 연등행렬 봉축 방불
'통제영 길놀이' 공연에 실사단 감동



수륙고혼천도재 모습.



의승수군 행렬에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

EXPO 2012 YEOSU KOREA

수륙고혼천도재란

지상의 땅이며 물속에서 떠돌며 기아와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로운 고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재이다.

거북선축제에서 매년 행해지는 수륙재(水陸齋)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의승수군 300여명과 함께 전투하다 전사한 영혼과 원혼들을 달래고 삼악도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천혼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흥, 남해, 구례, 곡성, 순천, 여수, 광주 등 각지에서 스님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때 승군대장은 화엄사의 자운 스님이었다. 승군을 결성한 것이 1593년 4월이었고, 임란이 끝난 뒤에도 300년간 지속되었다.

여수사암연합회 회장인 명선 스님은 "전쟁에 참여한 승군들의 원혼을 위해 선조가 보낸 쌀 600석으로 흥국사, 석천사, 은적암, 용문사 향일암 등에서 300년간 수륙재를 열었었다"며 "일제 때 없어졌는데, 24년 전 내가 흥국사로 오면서 사적기를 바탕으로 복원돼 8년 전부터는 진남제의 공식행사가 되었어요."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5>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원효 스님께서는 <발심수행장>에서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증을 멈추리라"고 하셨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들어간 그 깊은 시주의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가벼운 생각으로 이를 받는 것은 도 닦는 길에 큰 장애가 된다. <선가귀감> 65장에서는 공양이나 시주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생각하여 자신을 살피고 그 과보를 알아 함부로 받아쓰지 말 것을 권한다.

故曰 道人 進食如進毒 受施如受箭 幣厚言甘 道人所畏.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를 닦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독약처럼 생각하고 시물을 받을 때는 독화살을 맞듯이 생각해야 한다. 신심 있는 사람의 두터운 대접과 듣기 좋은 말들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문경훈> 7권에 실려 있는 자수(慈受) 선사의 소참법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뒤를 이어서 "그대가 환하게 도를 깨치기만 한다면 황금 만량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爾灼然 與道相應 萬兩黃金亦消得]"라는 말이 나온다. 도를 깨치기만 알면 황금 만량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참 도를 닦아가는 수행자에게 시주물은 아름다운 공양물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 인과법도 깨닫지 못한 채 맛있는 옷과 부드러운 옷에 수행자가 길들여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공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행자는 독화살에 맞은 것처럼 마음이 검어지고 눈이 어두워져 끝내는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주가 보시하는 음식과 옷, 침구, 약품 그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이익 되는 물건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 공부 길을 해치는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되고 만다. 독약이나 독화살을 받은 몸은 죽거나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면 그뿐이지만, 시물을 함부로 받아 쓰는 과보는 뒷날 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영원히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행자 탐심 일으키면 독화살 맞는 것과 같아
공양은 깨달음 이루기 위한 방편임을 알아야

도를 깨쳐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수행자는 평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시주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집에서는 공양하는 것도 수행으로 삼아 중요시하고 있다. 공양 때마다 공양물에 담긴 뜻을 다섯 가지로 살피는 오관게(五觀偈)를 외우며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도 소중히 여겨 남기는 법이 없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計功多少 量彼來處]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忖己德行 全缺應供]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防心離過貪等爲宗]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正思良藥 爲療形枯]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爲成道業 今受此食]

공양을 받아 이 오관게를 외면서 먼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살펴야 한다. 음식에 담긴 여러 사람의 노고를 볼 줄 알고 느낄 줄 안다면 이 공양물은 단순한 공양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인 귀하고 소중한 인연덩어리이니, 여기에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 자신의 덕행을 헤아려 이 귀하고 소중한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온화하게 쓰며,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삼보(三寶)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비로소 시주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의 덕행을 살펴 수행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식탐(食貪)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중생의 모든 허물은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니 음식에 대하여 좋고 나쁘다는 분별이 없이 인연 주어진 그 음식에 고마운 마음을 지녀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다른 욕망들도 담백해져 허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비우고 받는 공양은 맛과 배부름을 떠난 것이니, 다만 이 몸을 지탱하는 약일뿐이다.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목말라 병이 들게 되어 있다. 음식을 약으로 안다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을 받아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도업을 이루기 위한 방편임을 살피는 일이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몸이 야위고 얼굴이 초췌해져 병이 생겨 부처님의 세상을 열어가는 도업(道業)을 이루기 어렵다. 수행자는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공양 때마다 되새겨야 한다. 절집에서 공양을 받을 때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일로 자신의 공부를 살피되, 도에 대한 안목이 없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進食如進毒者 畏喪其道眼也 受施如受箭者 畏失其道果也.

음식을 독약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도에 대한 안목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시주물품을 받을 때 독화살을 맞듯이 하라는 말도 탐욕 때문에 깨달음 자체를 잃을까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음식이나 시물을 독약이나 독화살처럼 생각하여, 시주자의 두터운 대접과 듣기 좋은 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음식과 시물을 떳떳하게 받을만한 '공부에 대한 안목[道眼]'과 '깨달음[道果]'이 없다면 시주받는 일이 불러올 인과법(因果法)을 알고 그 과보에 대하여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라면 부지런히 공부하여 도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불법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이 불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면서도 다행'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 불법은 늘 새로울 것이고 부처님의 법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래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겨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하늘과 인간의 큰 복전이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삼신불(三身佛)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일컬어 보통 삼신불이라 한다. 삼신불은 부처님의 몸이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법신불은 법, 깨달음의 세계, 진리를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를 형상화한 부처님으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오고 가는 것도 없는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다. 법신불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구석구석 안 계신 곳이 없다. 사찰에서는 비로자나불을 가리킨다.

보신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나타난 부처님으로 복과 덕이 가득해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보신불은 보살이 오랫동안 고행과 난행을 거쳐서 된 부처를 뜻한다. 법장보살이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정진하여 성불한 아미타불이 여기에 속한다.

화신불은 법신불이나 보신불을 볼 수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이다.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을 대표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삼신불을 모시는 경우가 흔하다. 중앙의 본존은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 좌우에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과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석가모니불이 협시한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7>



상담자의 자격

지난 회에서는 내담자 요소를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상담자 요소를 검토해 본다. 심리상담의 정의에는 상담자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상담 장면과 일상적인 대화나 도움 활동의 차이점이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상담가라기보다 분석가라는 말을 쓴다. 분석가는 사람의 심층심리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화함으로써 통찰에 이르게끔 하는 분석 과정도 전문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에게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를 기울이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상담가가 어떠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접근법을 쓰려면 행동주의 이론 및 기법에 능숙해야 하며,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해 나가기 위해 끈기와 인내를 갖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미 학습된 행동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여타 어느 이론보다 상담자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인간중심 상담의 주창자인 칼 로저스는 상담자의 첫번째 자격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상담자에게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 첫째가 '객관성'이며 둘째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이고 셋째는 '상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며 넷째는 '심리학적 지식'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위대한 상담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담자로서의 석가모니는 어떠할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의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부처님이 갖춘 여섯 가지 신통력인 육통(六通)에서 알 수 있듯 타심통(他心通)과 천이통(天耳通)이 있어서 내담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숙명통(宿命通)이 있어 내담자의 전생의 일까지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천안통(天眼通)이 있어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 태어나 살아가다가 죽는 모습까지 안다. 누진통(漏盡通)이 있어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했으며, 괴로움을 다하는 방법 또한 참다이 터득했다. 또한 부처님을 부르는 칭호인 여래십호(如來十號)에서 볼 수 있듯 부처님은 이 세상의 물심 현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 '정등각(正等覺)'이며, 지혜와 행을 모두 갖추어 '명행족(明行足)'이기도 하며,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알아 '세간해(世間解)'라고도 한다. 또한 사람을 다루는 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에서 '조어장부(調御丈夫)'란 명칭도 있다. 상담자로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현대 상담자의 자질 모두 갖추고 있어
최고의 능력 가진 사람 '조어장부'라 불리기도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안 내

◆일 시 : 불기 2551(2007)년 5월 12일(음 3. 26) ~ 13일(음 3. 27) 2일간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 · 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0085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615107-51-019966 농 협 (예금주 : 송광사)
◆문의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9 / FAX 061)755-0408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월간 『불교와 문화』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선지식을 찾아서 인환

“내 안의 부처 환하게 드러내세요”

휘바람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봄볕에 졸고 있는 경국사 마당을 가로지른다. 다람쥐 한 마리가 하릴없다는 듯이 떡갈나무 사이를 오고간다. 진달래꽃은 분홍빛을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정오의 고요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꾸밈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환 스님의 거처에는 ‘환희당’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한지 바른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소박하게 꾸며진 작은 법당이 눈에 들어온다.

“요즈음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먹는 것을 줄여 가면 되는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 빼겠다고 하니 어렵지요. 식탐만 덜어져도 욕심이 반 이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미식가이고 대식가인 파세나디왕은 체중이 자꾸 불어나자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은 왕의 고민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을 억제하여 식사량을 조절하여 적게 먹어야 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병은 덜 앓게 되고, 늙음이 천천히 찾아와 오래 살게 된다’ 는 게송을 읊었어요. 그후 파세나디왕은 식사를 할 때마다 시중을 드는 아이에게 이 게송을 읊게 했어요. 소식을 하면 탐욕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부처님은 명리(名利)를 여의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수행하기 힘들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환스님은 5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경전독송과 108배 그리고 참선을 하신다. 3시간이 걸리는 새벽 예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중들과 같이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지만, 어느 날 새벽예불을 하러가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이후로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스님의 방 한쪽에 법당을 마련하여 예불을 올린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같아 지혜의 덕성을 갖추고 있건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구나’ 하는 말씀이지요. 불성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찻잔은 부처가 보아도 찻잔이요, 중생이 보아도 찻잔입니다. 이처럼 부처에게도 있고 중생에게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지만 눈, 귀, 코는 하나의 수단일 뿐 이 모든 것을 마음이 느끼고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불성인 것이라. 그런데 진심과 망심이 합쳐진 것이 또 마음인 것이라. 망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심으로 돌리는 것이 견성입니다. 견성이란 여기에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닌 저기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가 원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불교의 믿음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절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간이 3일, 7일, 21일, 100일, 1000일로 나간다. 이 숫자는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일념으로 정진했을 때 도를 이루기까지의 걸린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일념만 되면 3일 만에 도를 깨칠 수도 있고, 7일 만에 깨칠 수도 있단다. 그런데 우리들은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불성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티끌이고 망상이란다.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이고 해결이 될 터인데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어 남 탓만 하는 풍조를 안타까워하신다.

선풍기 빨리 돌면 보이지 않듯 무념 가득하면 번뇌 사라져

근본 알고 절해야 업장 소멸, 소원만 비는 절은 욕심 부추겨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챙기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하면 되요. 하다말다 하면 안되고 오로지 바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일 년을 하고 삼년을 해 봐요. 오로지 한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념만이 자리합니다. 일념으로 가득 찬 무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3~4개나 되지만 빨리 돌면 날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념으로 가득 차면 번뇌망상이 붙을 수가 없지요. 한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념만이 자리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화두이고 화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즉 아미타불이 나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절을 할 때도 일념으로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금생의 업장은 물론이고 과거에서부터 쌓여 온 업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같은 절을 해도 그 근본을 알고 하면 업장을 녹아내리는 절이 되지만 모르고 하는 절, 소원만 비는 절은 자신의 욕심만 부추기는 것이 되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극락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동국대학교에 몸담고 있었던 인환 스님은 77살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문을 청하는 자리라면 전국 어디를 마다 않고 찾아간다.

스님은 ‘지하철도사’로도 알려져 있다. 어디를 가시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스님은 수행자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으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사는 것이 즐겁기만 하단다. 스님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스님의 환한 미소도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리라.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일러주었다. 수행자로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평생을 살아 오셨기에 맑고도 청정한 기운이 느껴진다. ‘환희당’이라는 스님의 당호를 마음속으로 되뇌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인환 스님은 19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에서 원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통도사에 주석 중이던 자운 스님에게 보살계를 수지했다. 71년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7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끝냈다. 76년부터 7년 동안 캐나다의 토론토에 대각사를 창건해 해외포교에 나섰다. 82년부터 96년까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기간 중 정각원장, 불교대학 학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동국대 명예교수이며, 일본 시즈오까 대학 객원교수이다.
저서로는 〈신라불교연구〉, 〈한국 불교 계율사상연구〉, 〈저기 도망가는 달마 잡아라〉 등이 있다.

新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마음의내외(內外)와 '법'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 입 문 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월 스님 (2)

경허 스님, 어떤 것이 혜명인가?
혜월 스님,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무심삼매(無心三昧)에서 짚신을 삼아 놓고 신골을 치는 망치 소리에 '이 한 물건(一物)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환하게 해소된 혜명(慧明: 혜월의 법명) 스님은, 그 길로 경허 선사를 찾아갔다. 경허 스님은 한눈에 뭔가를 간파하고 물음을 던졌다.

"그래 참선은 무엇 하러 하는가?"

"못에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목전(目前)에 고명(孤明: 뚜렷이 밝은)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고?"

이에 혜월 스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 섰다.

"어떤 것이 혜명(慧明)인가?"

"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천성인(一千聖人)도 알지 못합니다."

경허 선사께서는 여기에서, "옳고 옳다" 하시며, 혜명을 인가했다.

한물건, 이뭣고 화두의 참구 대상
역대조사들 이치로 알려는 것 경계
혜월 스님은 언어 · 생각 떠나 대답

'한 물건'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으로서, '이뭣고?' 화두의 참구 대상이다. 육조 대사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괴었으며, 밝기는 일월 같고 검기는 칠통(漆桶)과 같아서 항상 나의 동정(動靜)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하고 제시한 공안이다.

이 한 물건은 그 어떤 언어로도 규정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과 조사도 입을 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불식(佛識: 모른다)'이라고 말했으며, 육조 스님의 인가를 받은 회양 스님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設使一物也不中)"고 했으며,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혜명 스님은 '혜명의 본래면목'을 묻는 질문에, 역대 성인도 이치로는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황벽 스님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지혜로써 알 수도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경계인 사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힘써 노력한다고 다다를 수도 없는 이것"을 "모든 불 · 보살과 일체 꿈틀거리는 미물까지도 똑같이 지닌 대열반의 성품(大涅槃性)", 또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性)'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듯이 이 '각성(覺性)'을 깨닫는 참선은 물고기가 물을 찾고, 광화문에서 서울 찾는 것처럼 자명한 평상(平常)의 일이다. 또 각성은 주객(主客)과 자타(自他)가 사라진 경지여서 찾으면 찾을 수 없지만, 찾지 않으면 없는 곳이 없어서 산꼭대기의 바람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있다. 이 '한 물건'은 무엇이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혜명 스님은 '한 물건' 자체가 되어 언어와 생각을 떠나 경허 스님의 질문에 척척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경허 스님은 전법의 표시로 비로소 혜명에게 '혜월(慧月)'이란 법호와 전법게송을 지어주었다. "일체법 사무쳐 알면 자성에 또한 소유가 없는 것/ 이와 같이 법성을 깨쳐 알면 노사나부처님 곧 보리라/ 세상의 생멸법 쉬어 생사 초월한 도리 부르짖으니/ 청산 다리 한 빗장으로써 서로 우물쭈물 하도다."

경허 스님은 혜월 스님에게 "남방이 인연 있는 땅이니, 이 길로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 했다. 혜월 스님은 하직하고 곧 양산 미타암으로 가게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나는 삼라만상의 주인 누가 속박하는가?

'혜안카페' 오프라인 수행 이각 스님의 '원각경' 강의



온 · 오프라인 불자들을 사로잡는 이각 스님(맨 오른쪽)의 <원각경> 강의모습.

"청정한 원각의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모든 법은 일체가 환(幻)인줄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읜지라 방편을 짓지 아니하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도 없습니다(離幻卽覺 亦無漸次)."

4월 7일 저녁 8시, 원주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심포교당 도각사(주지 향수). 아담한 법당에 스님 10여명을 비롯한 20여 대중이 이각(理覺) 스님의 <원각경> 법문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뚜렷이 깨친 묘한 마음

원주 근교의 강원도 불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카페인 '혜안(cafe.naver.com/rafulra.cafe)의 회원들이다. 오프라인에서 신행이 이어지기 힘든 온라인 수행도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절반이나 경전강의에 동참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법문의 수준 역시 상당한 안목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 더구나 최상승 돈교(頓敎)인 <원각경> 법문이다 보니, 법회가 이뤄지는 이 자리가 그대로 원각도량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심이 난다.

"중생의 무명은 본디 스스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윤회는 실로 있지 않은 '나고 죽음(生死)'을 실로 있는 것으로 보는 중생의 전도된 망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각경>은 이러한 온갖 중생의 갖가지 허깨비의 변화가 모두 여래의 '뚜렷이 깨친 묘한 마음(圓覺妙心)'에서 나온다고 보기에, '일체 중생이 이미 뚜렷한 깨달음을 증득해 쓰고 있다(一切衆生 皆證圓覺)'고 설합니다."

이각 스님의 법문에 따르면 최상승 돈교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다는 기존의 수행관이 아닌, '닦음 없는 참된 닦음(無修之修)'이다. 그것은 중생의 생사와 무명이 실로 있지 않음을 바로 비춰내되, 생사 없음에 머물지 않고 생사를 해탈의 묘용으로 바로 드러내는 수행이다.

즉 그것은 온통 깨달음인 수행이고, 그 깨달음은 온통 닦음으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원각경>은 자신이 '원각'으로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함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방편과 차제의 이름을 세우되 실로 방편을 짓지 않고 차제가 없기(不作方便 亦無漸次) 때문이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환(幻)과 같은 방편으로써 환을 닦는 '허깨비 같은 삼매(如幻三昧)'로 끊임없이 환을 여의어야 원각에 들 수 있지만, 예리한 근기는 진실로 환을 여의고 다시 허망한 알음알이를 내지 않아서 원각이 저절로 스스로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온갖 생각 드러내는 근원적 능력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을 끝으로 <원각경> 법회를 회향하는 이각 스님은 1년 동안 설해온 법문을 총정리 하듯이 자상하게 되풀이 한다.

"6근과 6진이 환상과 같아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들이니 당연히 그 둘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각도 그 실체가 없어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다면 6근이나 6진은 '없다는 것도 없는 것'이 되어 버리니 생각의 근본인 '깨달음(覺)'에 본래 갖추어진 세 가지(세상, 몸, 생각)가 어울려 드러나는 것이 현실 즉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이 세계인 것이고 실상이며 현실이고 인생인 것이니, 비유하면 이 세상은 '꿈의 세상'이며 '환상의 세상'이며 '깨달음의 세상'이니 '오직 정신세계(三界唯心)'인 것입니다."

이각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覺=佛)은 온갖 생각을 드러내는 근원적인 능력'이다. 또한 '생각'이란 객관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인 감각기관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이다. 눈은 세상의 색깔이 모두 사라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색 또한 눈이 사라지면 그 실체가 증명될 수 없는 빛의 현상이지만, 이 둘이 화합되면 '보인다'라는 '작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6근, 6진, 6식 이 셋은 모두 허상입니다. 이 셋은 셋이 아니고 하나인 '깨달음'이고 '지금'이며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러함을 깨닫는다면 이제 삼라만상에 의해 속박 받을 '나'가 아니고 삼라만상을 끌어안고 있는 왕이므로 극치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의 경치입니다."

▲'지금 여기'의 깨달음 확신

저녁 8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펼쳐진 이각 스님의 열정적인 설법은 철저히 경전에 근거한 것으로, 뼈를 깎는 자내증(自內證: 스스로의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에서 나온 것으로 느껴졌다. 법회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의 깨달음을 확신토록 하는 힘과 진실을 담은 감동적인 '꽃자리'였다.

희각(53 · 원주) 보살은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자타(自他)와 생사가 본래 없음을 밝혀 자유의 불사조(不死鳥)가 되고, 스스로 만든 환상과 꿈인 이 세상의 실체를 명확히 깨달아 참나의 위대함을 이생에서 기필코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혜안 카페는 최근 이각 스님의 법문을 모아 <불멸>(지혜의눈 刊)이란 책을 펴냈다. 이 카페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철야 참회정진법회를 열고 있다. 철야법회를 회향한 '지심(至心)'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열반경> 법회도 열 계획이다. (033)734-1422

원주 도각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게시판

근일 스님 법문 및 철야정진
영주 부석사는 4월 28일(토) 저녁 9시부터 근일 조실스님 법문에 이은 참선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054)633-3464

단기 출가학교
평창 월정사는 5월 6일~6월 4일(30일간) 제12기 단기출가학교를 연다. 일반 남녀 각각 30명(60명)이 삭발염의(削髮染衣)하고 출가생활을 체험한다. (033)332-6664~5

대효 스님 참선법회
제주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은 4월 24일(화) 오후 7시 서울 논현동 불이선원(02-543-2007, 매주 2 · 4째주 화)에서 참선법회를 연다. 원명선원(064-755-3322) 참선법회는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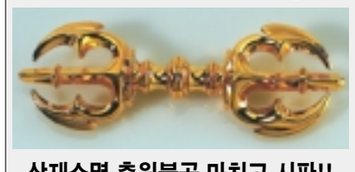
자애명상과 마음챙김명상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11시(3박 4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자애명상과 마음챙김명상 집중수행을 갖는다. (043)833-7789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 안 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金나노 중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화제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증정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어려움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⑪ 다음생을 준비하는 마음

소외되는 마음의 상처

K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제 70대 말인 그는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절에 다녔어도 막상 내생이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슬프기만 하고 화도 나고, 애들에게도 짜증을 많이 냈지요. 내가 바란 만큼 대접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말도 못했어요. 아무튼 늙는 게 서럽고 죽음이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들은 어차피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 K씨는 혼자 살 엄두도 나지 않아 아들이 이사하는 새 집으로 함께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 집에서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은 단지 조그만 방 하나였다. 방에는 장롱 하나만 달랑 있었다. 평생 쓰던 물건과 가구들을 거의 다 가져갈 수 없었다. 새 부엌의 살림살이들은 수십 년 손에 익은 그릇들이 아니라 며느리 것이었다. 남의 집 같았다. 게다가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손자들도 학원에 가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컴퓨터만 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이 집에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 같았다.

"정말 그 때 마음은 '어머니는, 할머니는 이제 곧 가실 분'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나도 이제 쓸모없구나, 가는 날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덜컥 들었어요." K씨는 서러운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어느 날 K씨는 이렇게 좌절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우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확신을 갖기로 했다. 그러자 본인의 업에 따라 새로 태어날 부모도 정해지고 운명도 정해진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왕이면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었다. 죽을 때 마음 상태에 따라 다음 인연이 정해진다. 가능하면 맑고 선한 마음이 되어 모든 악업을 지우고 좋은 인연만 남기고 싶었다.

그러려면 이생에 지은 업들을 참회해야 할 것 같았다. 미워했던 사람들이나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절에 갈 때마다 하나하나 참회하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을 바꾸어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 요즘 부모 모시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기들 새 집 이사하며 나를 받아준 것도 고맙지 뭐.' 그랬더니 애들에게 미소가 지어지고 따뜻한 말이 나왔다.

K씨가 마음을 바꾸어 웃고 다니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다들 좋아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긍정적인 분이세요. 저희들을 참 잘 배려해 주시고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 같이만 되었으면 좋겠어요"하면서 주위에 자랑까지 하게 되었다.

K씨는 가끔 다음 생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어떤 부모일까, 형제들은, 하면서 선업(善業)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 봉사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매일 절에 나가며 즐겁게 생활하게 되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 잘 살아야지'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가게 되었다.

날마다 좋은날

한 생이 전부이고 끝인 줄 아는 중생의 마음은 늙고 죽는 것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계속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끝이 또 다른 시작이므로 오히려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보살의 원력과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여 하루하루, 한 생 한 생을 소중히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나는 이 집에서 필요없는 존재인가?"

죽을때 마음상태 따라 다음 인연 정해진다고 믿어

참회 ·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활 '행복'

신행게시판

정해년 쌍계사 보살계
하동 쌍계사가 4월 21~23일 보살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열리는 이번 보살계대법회는 21일 오후 2시에 입재하며 23일 오전 8시 장경정대불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갈마아사리 범일 스님, 교수아사리 보광 스님이 보살계대법회에서 사부대중에게 보살계를 수계한다.
하동 쌍계사는 계맥의 중흥조인 대은 금담 율사가 전통 계맥을 전하던 전법도량으로 매년 정기보살계 대법회와 대장경정대불사를 봉행해 오고 있다. (055)883-1901

부산 여여선원 53선지식 초청 화엄산림
부산 여여선원의 53선지식 초청 화엄산림의 여섯 번째 법회가 4월 19일 불국사 강주 덕민 스님의 강의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시작돼 매달 한 차례씩 열리는 이 강의는 2009년 6월 25일 회향 때까지 천일기도와 동반해 이루어진다.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마련된다. (051)853-5486

해동용궁사, 삼화사 · 불탑사 성지순례
부산 해동용궁사 신도회는 4월 24일 영동 남부지역 선종사찰인 동해 삼화사와 불탑사로 4월 성지순례를 떠난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삼화사는 고려 태조 때 삼화사라는 이름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소실돼 중건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시대 철불 등 문화재들이 많다.
오전 6시 30분 부산역 아리랑관광호텔 옆에 집결해 출발한다. 동참금은 3만원이다. (051)722-7744

표충사 춘계향사와 등축제
밀양 표충사는 4월 15~22일 서산, 사명, 기허 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한다. 이 기간동안 호국 호법 선망 부모 영가를 위한 천도재와 국태민안 기원 등축제도 같이 진행한다. (055)352-1070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상 여행의 행복 (하)

아일다 서울 마포구

또다시 긴 여정에 올랐다. 바오록으로 가는 길 두 대의 차에 나누어 탔던 일행이 한차에 다 모였다.

용서를 주제로 서로 마음나누기를 했다. 지난날 용서할 일을 기억해내서 노트에 '-구나, -겠지' 하는 식으로 감사명상에 따라 느낌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적은 것을 짝과 바꾸어 읽고 거기에 대해 서로 얘기해 보며 우리는 한층 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섰다.

이번엔 짝을 바꾸어 3단계 인사 나누기도 배웠다. 먼저 상대를 칭찬하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기분을 표현하고 그런 다음 칭찬을 해준 사람을 다시 칭찬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 칭찬을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겉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그 칭찬을 되돌리는 법을 배웠다.


그림: 문병성

칭찬 받아들이고 되돌리기 배워

6일간의 여행으로 '행복한 삶' 충전

버스가 평지를 지나 산으로 진입할 무렵 스님의 10분 스피치가 있었다. 이 여행이 더욱 값지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원 스님의 유쾌한 진행으로 바오록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장시간 여행의 지루함을 잊고 시간은 금세 흘렀다. 한분 한분의 스님께서 진솔하게 들려주시는 속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십고좌 법회였다. 바오록은 산이라 기온도 다르고 공기도 달랐다.

큰 호텔이 없는 탓에 우리는 두개의 호텔로 나누어 투숙했다.

여행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아쉬운 마음에 백련님, 연리원님이 여연심님과 내가 있는 방으로 놀러 오셨다. 중간에 고 보살님도 오셔서 차를 들며 정담을 나누었다. 다음날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는 설렘도 늦은 시각 무거워지는 눈꺼풀도 우리의 얘기보따리를 접을 수는 없었다. 비몽사몽 얘기를 나누다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 사이는 나흘 동안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드디어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는 날이었다. 우리 일행은 행사가 있는 안락사로 향했다. 틱낫한 스님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법문과 걷기명상하며 탁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베트남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며 법문을 하셨는데 스님의 말씀은 마치 미풍이 불어오는 듯 했다. 잔잔한 미소와 고요하신 모습은 참 단아 하셨다. 우리 스님들도 가사를 입으시고 발우를 드시고 탁발행렬에 동참하셨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탁발행렬을 따라 전진했다. 틱낫한 스님은 줄곧 미소 띤 얼굴로 탁발하시며 간간히 손을 들어 인사에 답례도 하셨다. 사람이 어쩌면 그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틱낫한 스님처럼 부처님 모습으로 피어나길 기도하며 탁발 행렬을 따랐다. 탁발이 끝나고 절로 들어가 점심공양이 있었다. 틱낫한 스님을 비롯해 탁발하셨던 모든 스님과 한국에서 온 우리 불자님들의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

공양을 들기 전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우러진 노래를 들었다. 베트남 말이어서 아마 오관게의 내용을 담은 노래가 아닐까 하고 짐작만 하였다.

플럼빌리지에서 틱낫한 스님은 아직도 노래를 직접 만드시는데 그곳에서는 노랫소리를 새소리처럼 자주 들을 수 있다고 마가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공양을 모두 마치고 운 좋게 우리 일행은 틱낫한 스님께 삼배를 올릴 기회를 가졌다. 틱낫한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스님을 사랑한다고 했다. 장내는 밝은 웃음이 퍼졌고 틱낫한 스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한국말로 정확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다. 틱낫한 스님을 친견한 감동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 환희심으로 빛났다.

우리는 다시 안락사로 가서 이번 명상여행을 회향했다. 세 분씩 앞에 나와 앉아서 삼배를 받고 다포를 받았다.

5박6일의 여행을 함께 나누며 정들었던 마음으로 깊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과 자비를 보내며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따뜻한 포옹으로 행복한 인연에 감사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맞는 일출은 황홀하고 장관이었다.

우리 모두가 화합해서 한 번의 불화도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자비명상으로 이어진 여행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가이드를 해주신 구기모 과장님도 이번처럼 일탈하지 않고 무사고로 여행한 경우도 처음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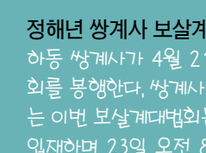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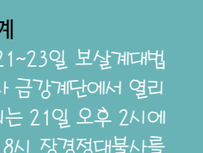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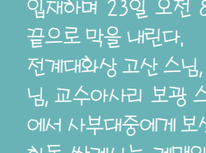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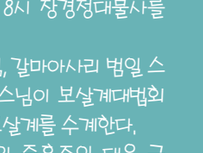
여행을 시작하는 날 뿌려진 눈은 축복의 꽃눈임에 틀림없었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여행했던 분들의 건강과 평온을 염원했다. (끝)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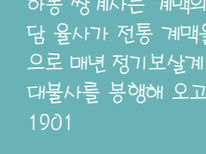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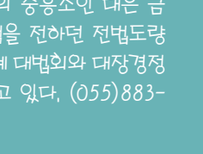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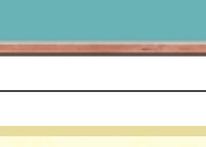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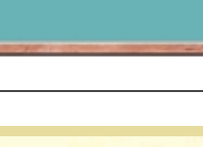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국민은행 103001-04-001967(예금주:윤두영)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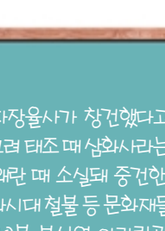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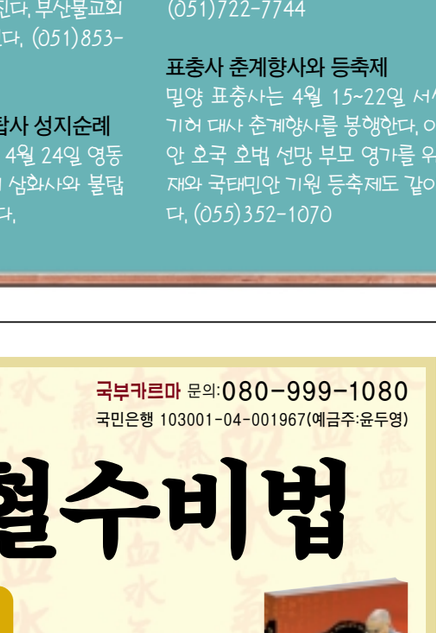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기혈수비법 강좌안내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남산스님 개인 친견가능)
장소 :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 지하철 역사내 3번 출구 안
문의: 080-999-1080

아름다운 연꽃을 분양합니다

우리나라 **연꽃 백연, 홍연, 자완연과 흰색 어리연과, 한대연꽃 수련과 온대 연꽃 등**을 저렴한 가격에 특별 분양하오니 많은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대연꽃과 가시연꽃등 희귀연꽃은 6월부터 분양하옵고, 연꽃을 키우는 방법과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덕왕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백연차와 3분용 연국수를 같이 판매합니다. (심는 적기는 6월달 이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연꽃관람은 6.7.8.9월달에 덕왕사에 오시면 약 200가지 이상 연꽃을 볼수가 있사오니 많이 관람하여 주시고 단체관람시에는 사전에 예약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포기 미만 주문시에는 택배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100포기 이상 주문시에는 특별히 현장까지 배달하여 드리고 심고 키우는 방법을 지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꽃 피는절 덕왕사 *분양문의*
덕인행 총무님 054)854-3855 / H · P 010-4814-9095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707107-51-019061 / 우체국 703439-02-214685(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용각 합장

스크랩 대상 1호

"신문 추가 기다려져요"



동대부속여중 불교반 연화회 3학년 학생들이 청소년면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한시연 교장(왼쪽)과 김남일 교법사(전국교법사단장, 왼쪽에서 두번째) 등 동대부속여중 교사들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토론을 하고 있다.

매주 전국 28개 초·중·고 교실에 빠짐없이 배포

"현대불교에서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 7일. 토요일을 기다려온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중학교(이하 동대부속여중) 학생들이 교정에 핀 목련꽃처럼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다.

마침 수업이 끝나고 '부활(부서활동)' 시간이라 동대부속여중 불교반 연화회 3학년 학생들의 '짜장라면' 파티가 한창이었다.

기자가 동대부속여중을 찾은 것은 본지의 어린이 청소년 지면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본지는 올해 12면과 13면을 '어린이청소년' 지면으로 지정, 새싹불자 키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런 의지를 실천하고자 현재 본지는 매주 전국 28개 초·중·고 종립학교에 950부의 신문을 배포, 모든 교실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제 약 4개월째. 평소에도 선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로 소문난 동대부속여중에서는 '현대불교신문'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동대부속여중에서 본지를 읽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시연 교장(사진)이다. 한 교장은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 가장 먼저 학교 법당을 찾는다. 수행을 하고 집무실로 돌아오면 일주일에 한 번 도착하는 본지를 짬짬이 훑어본다. 한 교장은 "읽어보니 내용이 다양해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레 권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몇 달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학생들과 마주치면 그냥 반갑게 인사만 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새싹불자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자라나는 불교계의 희망을 보며 학생들이야 말로 '보살'이라며 감동하면서도 한 교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학생들이 불교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본지가 전 종립학교에 신문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 교장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나타났기 때문. 종립학교라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한 교장은 "그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불교에 대한 오해들-고리타분하다, 미신이다 등-만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본지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직접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을 하고 있는 교법사들도 "현대불교는 이미 도서관에 스크랩 해둬서 학생들이 읽기 좋은 자리에 배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중"이라며 본지의 어린이청소년 지면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남일 법사(전국교법사단 단장)는 "파격적인 지면 구성에 대해 높이 평하고 싶다"면서 "현대불교에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권진영 법사는 "새싹불자 포교의 저변이 제대로 마련되기도 전에 현대불교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권 법사는 본지가 학생들과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좀 더 단단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학생들이 불교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청소년 정보를 전달해주었으면 합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신문은 다가가기 어려운 매체입니다. 그런 현실이지만 불교의 본질과 청소년 사이를 어떻게 이을 수 있을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짜장라면'이 배달됐다. 학생회장 태림이(3학년)가 배달부 역할을 하며 기자에게 현대불교에 대해 한마디 던졌다.

"요즘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가 종종 다뤄지는 것 같아요. 현대불교에서 일반적인 건강기사나 전시회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요."

키가 큰 주아(3학년)는 불교신자가 아님에도 연화반 활동을 즐긴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 관심도 많아졌고 현대불교도 읽게 됐다고 한다.

"신문 중앙에 두 페이지나 청소년 지면이라니!! 그냥 재미로 연화반 활동을 해왔는데 현대불교를 통해 불교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성불하세요 인사에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아이들이 신문 접한 후 달라졌다는 한 교장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애주는 기사들 신선한 지면·유익한 정보 가득 놀라워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본지에서 찾아낸 '부족한 2%'는 무엇일까.

송이(3학년)는 "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찰 행사나 불교학생회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옆에 있던 미연이(3학년)는 "좀 더 부드러운 신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요즘 유행하는 숫자 맞추기 게임이나 숨은그림찾기 같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다"고 귀띔했다.

본지가 새싹불자 포교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이제야 도약의 발판만을 마련한 셈이다. 지금은 새싹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양한 요구와 그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지금보다 더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불교에 많은 기대를 걸어요. 좋은 정보, 멋진 기사 부탁드려요!"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는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031)631-6501

강원도 영월에서는
4월 27일~29 영월군 장릉(단종 왕릉)과 동강둔치, 청령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단종문화제'를 연다. 단종 국장과 궁중제례의식에 따른 육일무 등과 조선왕릉 사진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등띄우기, 북 만들기, 한지 뜨기 등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033)370-2226~7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는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재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불교교리, 교육이론, 실기 등으로 진행되며 4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02)739-496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책만들기 체험, 구연동화 듣기, 강연회 등으로 구성되며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02)2669-0742~44

서울시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꿈을 키우는 내 친구 서울 어린이 백일장'을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자연학습체험장 옆)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서울시 어린이 홈페이지(ki.seoul.go.kr)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4월 25일. (02)731-6045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틱낫한스님 친견 및 마가스님 명상수행 순례"
-베트남수도 하노이에서...



◈ 기 간 : 2007년 5월 2일 ~ 5월 6일
◈ 주요일정 : 인천 - 하노이 - 베트남북부(하롱베이) - 틱낫한스님 친견 - 인천
◈ 출발인원 : 60명(선착순마감)
◈ 동 참 금 : 890,000 / 1인
◈ 예약방법 : 계약금 및 여권복사본 (잔여기간6개월 필히요)을 보내주시면 예약됩니다.
※계약금 ₩200,000
◈ 계 좌 : 농협 053-02-171800(예금주:구광국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기도〉를증정합니다."
www.ajet●ur.c●.kr



아제여행사 출발확정
▶티벳하늘열차 8일 5월 28일,6월 19일,6월 23일 1,790,000
▶초조달마에서육조혜능 선사 선적지 8일 6월 5일,9월 1일, ₩1,490,000
▶구화산,황산5일 5월 26일 ₩799,000
▶대만 불광사,자재정사순례5일 5월 26일 ₩890,000
▶불탑의 나라 미얀마 7일 5월 26일 ₩1,590,000
▶보타산/천태산/상해5일 5월 28일 ₩840,000
▶동유럽 7개국12일 6월 1일 ₩3,050,000
급모객(현재 8분) ▶시베리아행단열차 12일 4월 23일 ₩3,090,000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5월 26일 ₩1,990,000

since 1999 문의 : 불교성지순례전문 아제여행사 TEL : 02)730-4008(代) FAX : 02)725-5006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1403호(우:110-170)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중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조 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새 학년이 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민지를 보고 엄마는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했지요. "너 요즘 보아처럼 되겠다고 날마다 춤 노래연습만 할래? 괜히 헛물켜지 말고 땀 흘려 공부하자. 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될 거야." 잔소리라고 흘려들으려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지는 "엄마, 헛물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이런 잔소리라면 그래도 괜찮았나요?

헛물켜다 :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두고 꼭 되려니 하고 헛되이 애를 쓰다.

갈무리 : 1.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메밀 네댓 되와 겨울 동안 갈무리를 했던 토란 잎, 아주까리 잎을 내다 팔기 위해 장 걸음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기도 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2.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옆 사람에게 일의 갈무리를 부탁했다.

가탈 :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어릴 적부터 음식에 가탈이 심하던 환도 후실댁이 만든 음식에는 불만이 없었다. <박경리, 토지>

개숫물 :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비릿한 시궁 냄새를 풍기는 도랑창이 바로 눈 아래 있고 금방 내버린 개숫물에서 김이 뽀얗게 올라왔다. <윤흥길, 묵시의 바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담은 소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시습作 '금오신화'

김시습(1435~1493)은 조선초기의 문인. 호는 매월당이지요.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비분강개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고 전국을 방랑하며 시문 창작으로 일생을 보냈어요. 경주 금오산에 은거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었는데 금오신화는 평양, 개성, 경주, 남원 같은 과거 왕조의 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창작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지요.

금오신화는 한문 소설이며 단편 소설로 재미와 깊이를 지닌 책이지요. 언제 창작했는지 정확하게 고증하기는 어렵지만 경주 금오산에 위치한 용장사에서 금오신화를 썼다고 해요. 작품속의 주인공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각각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면면을 볼까요? 양생(만복사저포기)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시 읊기를 좋아함. 이생(이생규장전)은 어린 나이에 재주가 뛰어나며 자유연애를 갈구함. 홍생(취유부벽정기)은 도가적 경향이며 시문에 능하고 친구와 친분이 두터움. 박생(남염부주지)은 과거에 합격 못한 불만 많은 유학자로 뜻과 기상이 고상하여 세력에 굴복하지 않음. 한생(용궁부연록)은 선비로서 글을 잘해 조정에 이름이 올랐고 평판이 좋음.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만복사의 저포(백제 때부터 유래한 윷놀이 종류) 놀이. 남원의 총각 양생(梁生)이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 놀이를 하여 이겨서, 그 절에 숨어 살던 처녀의 죽은 영혼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하다. 불교의 발원(發願) 사상으로 시작해서 윤회(輪廻) 사상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인물 묘사 등 창작성 뛰어나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홍생이 평양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동강에서 놀다가 술이 취한 후 부벽정(루)에 올랐다가 기자(箕子)의 딸을 만나 밤이 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데 날이 새자 그 딸은 시를 남겨두고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시(詩)마저 회오리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 이후 홍생은 상사병을 얻어 죽게 된다. 기자왕의 딸을 사모한 것은 단종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한 것.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 주인공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으로 들어가 상량문을 지어 주고 용왕은 뛰어난 시작(詩作)에 감탄을 하여 잔치를 후하게 여는데 미인들 총각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춘다. 잔치가 끝난 후 용왕의 허가를 얻어 누각이며, 번개를 치는 전모(電母)의 거울이며, 뇌공(雷公)의 북, 비를 오도록 만드는 기구 등을 구경한다.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는 이야기'란 뜻. 사랑이 테마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배경이다.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소재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초월한 남녀 간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압권이다. 등장인물은 이생은 다소 소극적이나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물이며 최랑은 적극적이면서 정조를 중시하는 인물로 역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생과 최랑의 사랑은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이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사건의 전개를 보면 처음에 이생과 최랑이 자유로이 만나 사랑하지만 이생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단락, 다시 최랑의 아버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혼하게 되어 행복을 누리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사별하게 되는 단락, 죽은 부인인줄 알면서도 다시 사랑하다가 정해진 '명수'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작품의 배경은 경주다. 유학자인 박생이 하루는 글을 읽다가 깜박 조는 사이에 꿈속에서 염라국에 들어간다. 박생은 염왕과 많은 질문(음양, 귀신의 도, 군자 소인의 구별, 고금의 치란(治亂), 속세 종교의 혹세무민(惑世誣民)적 죄악에 대하여)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그의 종교관 인생관을 박생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지방대 가도 성공할 수 있나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지방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방대 나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ID:우울한고3)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수능 날짜는 다가오고,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나 봐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칭찬해주고 싶어요.
고3 시기에는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학업이나 입시에 신경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지방대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방대도 경쟁력 있는 학과도 많고, 요즘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늘어나는 추세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으니, 벌써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흔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상담자 생각에는 학생이 지금부터 할 일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봐요.
고3이다보니 공부하는 시간 10분이 아깝겠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상담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학생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실)

옻 한번 드신분은 꼭 다시 찾는 100% 토종 참옻!
안오르는 100% 토종참옻
Wellbeing 히트상품 LIG 3억원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간편하게 팩으로 포장한 제품도 나와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농축 고형분이 매우 높아 그 유효성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본 제품의 원료는
❶ 농림부 국책사업
❷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❸ 서울대학교 임상완료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 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탈 걱정없는 참옻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 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6. 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 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 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공급원 옻가네 참옻농원 문의 080-838-3366

‘연꽃 스님’만 공경하면 ‘폐종망교’

박성배 교수 ‘몸과 몸짓의 논리’서 불교계 현실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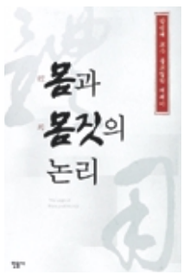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요즘 불교계를 들여다보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

적지 않은 불자들이 이 같은 말을 한다. 불자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불만족’을 갖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불만의 실체와 대안을 명쾌히 내놓을 논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날이 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 병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진단이 명쾌하지 않으니 처방도 흐리멍덩할 수밖에 없다.

박성배 교수(뉴욕주립대 동양학과 · 사진)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 왜 그리 일그러졌는가를 ‘몸과 몸짓’의 논리로 밝혔다. 철학 에세이집 <몸과 몸짓의 논리>는 박 교수가 불교와 인연을 맺고 출가와 환속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느낀 점들, 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대하는 마음, 미국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이질성과 동질감 등을 적나라하게 풀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불자들의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 버릴 만치 통렬하다.

몸과 몸짓이란 다름 아닌 ‘체(體)와 용(用)’이다. ‘체와 용’은 동양사상에 있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살이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데 줄기차게 적용되어 온 잣대다. 박 교수는 이 잣대를 통해 한국불교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몸과 몸짓의 논리
박성배 지음
민음사 | 2만3000원

“사람들은 곧잘 자기의 몸이 허약해 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몸짓만 튼튼한 듯이 꾸미려 한다”는 현실에서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살폈고 인간살이의 모순을 진단했다.

‘고승’에 대한 박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처방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불교엔 진짜 고승은 사라지고 가짜 고승만 날뛰는 폐종 망교의 위기가 닥쳐 올 것 같은 위기감에 사로잡히곤 한다”는 박 교수는 ‘보이는 고승’과 ‘보이지 않는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즉, 보이는 고승과 보이지 않는 고승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보이는 고승이 꽃이나 잎이면 보이지 않는 고승은 흙속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뿌리는 체이고 잎이나 꽃은 용이다. 오늘날의 불교는 보이지 않는 뿌리는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잎과 꽃에만 관심을 갖는데서 ‘병’을 불러 들였다는 것이다. 체에 대한 소홀이야말로 용에 대한 일그러진 현상을 낳는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일체중생이 다 고승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연꽃(보이는 고승)’과 연꽃을 키우는 바탕인 ‘진흙(보이지 않는 고승)’을 함께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리는 재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도 해당된다. 연꽃이 되느냐 진흙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흙(체)과 연꽃(용)이 다 함께 작용하는 원리를 인식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대응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몸과 몸짓의 논리>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 지혜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박 교수의 ‘자비심’이다. 중생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사람다움’에서 출발한다. 사람이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죽음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지음
마음의 숲 | 9500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맞닥뜨려할 죽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웰빙 열풍이 수그러드니 이제는 웰다잉(well-dying) 바람이 거세다.

쌍계사 승가대 교수 월호 스님이 펴낸 이 책에는 잘 죽는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잘 소개돼 있다. 죽음을 삶에 비춰보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로 존재함을 알려주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는 삶의 지침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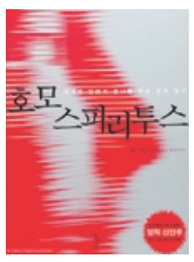
월호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여기’를 선물로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웰다잉을 주제로 한 책을 쓴 것은 출가동기와 관련이 깊다. 스님은 명문사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소위 잘나가는(?)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의 죽음을 잇달아 겪으며 ‘생사(生死)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까지 마치고도 의문이 풀리지 않자 뒤늦게 출가했다.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내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자비롭게 실천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월호 스님은 “이렇게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법이며 동시에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후회없는 법”이라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인류의 진화 깨달음의 진화



호모스피리투스
데이비드 R. 호킨스 지음
백영미 옮김
정신세계원 | 1만9500원

“제대로만 본다면, 다 찌그러진 낡은 쓰레기통도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지난해 4월 과학자이자 영적 연구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역자에게 한말이다.

역자인 백영미씨는 “호킨스 박사의 집은 삐걱거리는 고물식탁이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20초에 한번씩 웃음을 터뜨리던 행복감은 다 찌그러진 쓰레기통조차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영적 교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번에 출간한 <호모스피리투스>는 ‘의식혁명’, ‘나의 눈’에 이은 3부작 완결편이다. 호모스피리투스의 특성인 ‘내재와 초월을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무한한 나’에 이르는 영적 진리 문답을 담고 있다. 저자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근대불교학의 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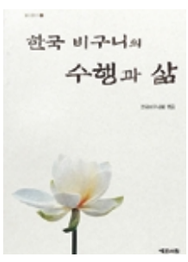
이능화와 근대 불교학
이재헌 지음
지식산업사 | 1만9000원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를 살다간 이능화 선생(1869~1943)은 근대 한국학의 거봉이다. 전통 유교집안 출신인 그는 불교에 입문, 최초의 근대적 불교학교인 명진학교 2대 교장으로 불교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교에 대한 그의 큰 업적은 당시의 한국불교를 진보사관과 역사학의 눈높이로 연구해 객관적인 불교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조선불교통사>의 출간이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 불교를 조명해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이능화의 불교학이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성립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 2장에서는 ‘이능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서 시대별, 분야별로 연구현황을 정리했으며, 제 3장은 ‘근대 한국불교학 성립의 배경과 과정’으로서 이능화가 근대불교학을 시작하기 이전 불교학의 흐름을 설명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일상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전국비구니회 엮음
예문서원 | 1만8000원

초기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여성의 직접적인 성불을 인정하는 대목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르다.

한국은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들 가운데 여성 불자들의 위상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티베트나 태국 같은 불교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 불자의 위치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례적으로 비구니와 비구의 구성비가 8대 2에 이르는 대만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비구니의 수계가 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불자의 위치는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일단 비구니 수의 비약적인 증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비구니수계식이 비구니장로에 의해 집전될 정도로 그 위상과 독자성이 강화돼 가고 있다.

이 책은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이런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던 많은 비구니선사들의 행적을 밟으면서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수행양상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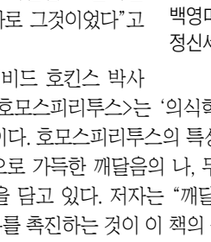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5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8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9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10	육조대사 법보단경	법지 역주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우리 시대의 큰 스님 활산성수 대선사와 활안 대선사 선법문집
너희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언제나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법문집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활안 큰스님이 최초로 발간을 허락해주신 책.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는 활안 큰스님의 벽력같은 일갈!
활안 대선사 법문 | 김성우 엮음 | 양장 | 값 13,500원



저 건너 산을 보라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마라. 구한 즉 고(苦)가 되나니라.”
난해한 선(禪)이 아니라 일상에 뿌리내린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한 성수 큰스님의 촌철살인 명법문집.
활산성수 대선사 법문 | 김성우 해설 | 양장 | 값 15,000원

Human & Books Tel. 02-6327-3535 | Fax. 02-6327-5353 | E-mail. hbooks@empal.com

三日三色 '찬불'



산사음악회의 기세에 밀려 공연장 음악이 주춤한 요즘, 3일동안 세 팀이 출연해 찬불가를 음성 공양하는 이색 무대가 열린다. 봉축기념 붓다콘서트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조계종 총무원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출연팀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5월 3일), 불음포교단체인 연꽃의 소리(5월 4일), 불교음악 그룹 '야소다라'(5월 5일) 등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찬불동요, 찬불가, 대중코드와 록 등 다양한 장르로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3일= '좋은 벗 풍경소리'가 봉축 음악회 '붓다콘서트'의 문을 연다. '좋은 벗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이종만씨를 비롯해 정유탁씨 등 그동안 풍경소리를 거쳐간 수많은 찬불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그동안 발표한 찬불동요 창작곡 1집에서 23집까지중 하이라이트만을 묶어 선사한다. 이외에도 연등축제의 주제곡인 '오늘은 좋은날'을 비롯해 '축제' 등을 부른다.

지난 11년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보급에 앞장 서 온 '좋은 벗 풍경소리'는 올해 찬불가의 대중화 작업과 찾아가는 문화포교 활동을 목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만 정유탁



지허 스님 강혜윤



이진호

봉축기념 '붓다콘서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5월 3일~5일까지

△5월 4일= 공군교육사령부 등 군부대 등에서 활발한 포교를 하고 있는 '연꽃의 소리'가 둘째날 무대를 꾸민다. 불교방송 심야프로그램 '붓다의 노래'에 출연중인 불자가수 강혜윤씨와 안산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출연한다. '연꽃의 소리'는 지난해 4월 강혜윤씨와 지허 스님이 함께 '패랭이꽃과 나그네' 음반을 발매하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음반은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함께 듣고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허 스님이 수행의 마음을 담은 불교적인 노래를, 강혜윤 씨는 불교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노래를 환상적인 하모니로 선사한다.

지허 스님은 "이번 공연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즐길 수 있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 5일= 내과 의사이자 찬불가 가수인 이진호씨가 결성한 그룹 '야소다라'가 무대를 채운다. '야소다라'는 락음악을 하며 음악은 비트가 있으나 결코 시끄럽지 않고 진솔하며 서정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전 인디밴드 '야소다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진호씨는 그 이름이 좋아서 '야소다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적인 강한코드와 록(Rock)으로 만나는 야소다라의 무대는 넘치는 열정과 화려한 샤우팅(shouting)으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붓다콘서트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야소다라의 음반 'Screaming Buddha(붓다를 외치다)'와 'Change the World(변하는 세상)'에 있는 곡들이 선보인다. 음악성을 가진 뮤지션보다는 돈으로 만들어진 상품만 있는 대중음악계 현실을 노래한 '음악은 죽었다'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춤을 추자는 내용을 다룬 '절벽 위에서 춤을' 등 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리듬감을 느껴볼 수 있다. 종교화합을 노래한 '평화의 노래', 록발라드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며 현대를 살면서 돈과 물질이 아닌 진리 즉 내면을 찾아가는 마음을 그린 '구도심' 등을 부를 예정이다. 재즈아카데미 작편곡과를 졸업하기도 한 이진호씨는 재즈, 뉴에이지, 포크음악을 크로스오버한 대중 불교음악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www.onket.com, (02)723-9836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탈속 경계 넘어서 禪畵일치

불화장 석정 스님 '연묵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을 기념하는 '석정 연묵전'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선서화 300여점. 선서화는 무심의 상태에 든 수행자가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그림과 글을 말한다. 따라서 전시 작품들은 이 시대 최고의 불모(佛母)인 석정 스님이 즉흥적 영감과 흥취를 그림과 글로 나타낸 것으로 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스님의 독창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다. 전시품들은 부처님을 비롯해 불보살, 달다, 소를 탄 동자, 포대화상, 한산습득, 일원상에서부터 연꽃, 해바라기, 난, 송월, 다구 등 다양하다. 또한 전시작품 아래에는 작품 속의 글귀와 해제내용을 함께 적어놓아 관객들이 선서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의 작품세계는 흔히 '이서도인(以書道人:그림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 '선화일치(禪畵一致:선과 그림의 합치)'의 경지로 일컬어진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은 "석정 스님의 경지는 선화일치의 무애경을 표출해냄으로써 보는이로 하여금 문득 천진무구한 동심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⑨

오대산 염불암

장인성 시인

너와집 추녀 밑에는
한강의 머릿물인 우통수(于筒水)가 솟는데요
노스님 읊어대는 염불에 맛이 들려
뚝 뚝 또르륵
뚝 뚝 또르륵
장단가락 매기듯 방울방울 떨어져서
강줄기를 이루는 석간수가 있는데요
그 물빛 수정처럼 곱고 고와서
부처님께 한 사발 떠다 올리면
중생들의 몫이니 손대지 말라시며
슬며시 내려놓곤 하신다네요.



염불암(念佛庵)-오대산 서대에 자리한 암자로 한강의 시작인 우통수가 솟고 있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영산재 시연

조계종 어장(魚丈)인 동주 스님이 한국전통불교음악의 본산인 하동 쌍계사에서 4월 21일 오후 1시 영산재 시연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는 불교의식인 '재(齋)'를 올릴 때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정가, 판소리와 함께 3대 전통 성악으로 꼽히는 귀중한 음악유산이다.

이번 공연에서 동주 스님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화엄경>을 쓰실 때 하늘에서 현인들이 꽃을 날리고 음을 연주할 때를 회상해 상징화한 정중동(靜中動) 미학의 결정체인 '영산작법'을 보여준다. 또한 영산재를 올릴 때 도량을 옹호케하기 위해 신중을 청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 영산회상 불보살님께 차공양을 올리는 '영산다게(靈山茶偈)' 등 20여 작법을 선보인다. 동주 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조계사에서 영산재를 재현하며 조계종내 그동안 단절됐던 영산재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나비그리기는 수행과 같아요"

금강사 주지 대행 스님 개인전

검정색과 초록색으로 날개를 단장한 제비나비가 노랑나비와 호랑나비들 사이로 날갯짓하며 바위를 넘는다. 동식물원의 풍경이 아니다. 천안 금강사 주지 대행 스님이 그린 화폭속에 있는 풍광이다. 스님이 달마도나 불화가 아닌 왠 나비를 그릴까?

대행 스님이 처음 나비를 그린 것은 50여년전, 우석 김기창 선생의 나비 그림을 보고 나서 시작됐다. 논일 밭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며 지천으로 흔하게 보던 나비인데 고운 자태를 왜 못 봤을까 한탄했다. 그때부터 우석 선생을 졸라 그림을 배우는 한편 나비를 직접 따라 뛰어다니며 크로키하고 나비 날개를 풀칠한 한지에 찍어 놓고 따라 그렸다.

"나비 그리기가 내겐 바로 수행입니다. 그림과 불교는 공존하는 하나지요.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년만에 개인전을 여는 대행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나비 그림외에도 '천마' '연꽃' '관세음보살도' '십우도' '달마도'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나비그림에선 세필의 정교함을, 달마도와 천마도에선 수묵의 굵고 힘찬 필력을 만날 수 있다. (041)521-2851

김주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2007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신(편)입생 모집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사물(태징,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구명시식, 점안의식등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 포교사, 재가불자, 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접수마감: 2007년 4월 30일 까지(전화접수 가능)
▣원주교육장 - 개강:5월 3일 목요일 오전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 초 반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6개월
범 패 반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1년
재의식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1년

▣춘천교육장 - 개강:5월 4일 금요일 오전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 초 반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6개월
범 패 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1년
재의식반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1년

교육내용
◎기초반 :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각단불공 (강사:원각스님)
◎범패반 : 종성. 거불. 헌좌게. 가영. 신중창불. 인성이. 복청게. 향수나열. 안채비. 겉채비 (강사:도담스님)
◎재의식반 : 천도재.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강사:도담스님)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게. 다게. 운심게 (강사:자인스님)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바라 1벌, 태징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원주교육장〉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원주시청옆) ☎033)731-7759
〈춘천교육장〉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춘천경찰서옆) ☎011-269-416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6. 선종의 사구게(1)

6조 혜능(638~713)의 단상 말씀은 <법보단경(法寶壇經)>이라 할 만큼, 선종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단경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돈오법문(頓悟法門)이다. 돈오법문을 가장 알맞고 명료하게 요약한 사구게(四句偈)가 바로 아래 게송이다. 물론 혜능 당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구게는 선종의 특질을, 혜능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6조 이후에 정립된 게송이지만 이 사구게야 말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의 황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가7종의 종지가 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不立文字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니
敎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見性成佛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不立文字)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입(立)'은 세운다, 정립한다는 뜻이다. 불립문자의 전체적 이해는 언어나 문자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며, 단지 불립문자란 자구에 집착하여 고지식하게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편집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나 죽은 후에 그대들은 한 곳에 스승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법문과 움직이고 사용함(動用)에 36대를 말하고, 또 나아가고 사라짐에 양변을 여의고 일체 법을 설하는데 자성을 여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묻는 사람에게 설법은 반드시 쌍으로 하여 대법을 사용하여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게끔 하여 마지막에 두 법을 다 제거하여 다시 갈 곳이 없게 해야 한다.'(<단경> '법문대시' 제9) 즉 두 극단의 상호 관계에서 중도(中道)의 의미가 자연 드러난다. 여기의 중도는 혜능이 말하는 자성으로 읽힌다.

> '불립문자'는 문자에 대한 집착 경계한 것
> 지혜의 완성은 중도를 통해 가능하며
> 가고 옴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면 '견성'

"만일 완전히 공에 집착하면 곧 무명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 할진대, 사람과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 말 또한 문자의 형상입니다."(<육조단경> 제9 '법문대시')

이어서 글자 그대로 '문자를 세우지 않음'(不立文字)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말하되 곧은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 하지만, 곧 이 不立의 두 글자도 또한 문자의 형상임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비방하면서 문자에 집착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미혹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지, 어찌 부처님 경전을 비방할 것이겠습니까."

불립문자에 대한 6조의 견해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지혜와 관계가 있다. 반야바라밀다, 곧 지혜의 완성은 중도이고 견성(見性)이다. 자성(自性)을 본 사람은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어서 모든 사물에 자연 응답을 하며, 또한 응답을 할 줄 안다. 6조는 '스스로 미망을 제거하여 내외명철(內外明徹)되면 자성 가운데 만법이 모두 나타난다. 견성한 사람도 이와 같다'(<단경>제9 '전향참회')

"견성한 사람은 세워야(立)할지 세우지 말아야할지 훤히 압니다. 그것은 가고 옴이 자유로워 머뭇거림도 없고 걸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물에 순응하여 움직이며 말에 알맞게 응하여 대답을 하며, 자성을 여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기 처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재신통을 얻어 유희삼매에 듭니다. 이것의 이름이 견성입니다."(<단경> 제7 '남돈북점')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❻

가재미

문태준 | 문학과지성사 | 6000원





문태준(1970~) 시집의 표제시인 '가재미'는 병원에서 암투병중인 어머니로 상징되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상징되는 화자인 '나'가 교감하는 아름다운 시이다. '그녀'를 열 네 번이나 반복하며 '그녀'의 현재와 일생을 반추한다. '그녀'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는 '가재미'로 비유한다. 그 '가재미' 옆에 화자인 '나'도 가재미로 나란히 누워 사랑을 표시하고, '그녀'도 '나'를 적셔준다. 병환중인 어머니와 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 나란한 수평의 관계로 완성된다. 이런 걸작을 만들어내는 문태준은 다른 많은 시에서 불교의 선적 상상력을 창작방법으로 동원한다. 그의 명작 '극빈'이 그렇다.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선적 · 생태적 상상력 풍부하게 활용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후략)

이 시는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열무꽃이나 흰 나비처럼 환하다. 그러면서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는 게으름의 미학과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는 자성의 인식이 만나는 구조를 갖는다. 화자가 게으르기 때문에 현실적 실리를 놓쳐서 얻은 심미적 아름다움은 채소와 꽃으로 비유되며, 이 꽃마저 나비에게 주어버리는 '극빈'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 도달하는 방법이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는 선적 상상이다. 그의 많은 시에는 사람과 벌레가 수평관계를 맺듯이 생태적 상상력도 풍부하다. 그중에 '벌레詩社'가 빼어나다.

시인이랍시고 종일 하얀 종이만 갉아먹던 나에게
작은 채마밭을 가꾸는 행복이 생겼다
내가 찾고 왕왕 벌레가 찾아
밭은 나와 벌레가 함께 쓰는 밥상이요 모임이 되었다
선비들의 亭子모임처럼 그렇듯하게
벌레와 나의 공동 소유인 밭을 벌레詩社라 불러주었다
나와 벌레는 한 짓을 먹는 관계요
나와 벌레는 無縫의 푸른 구멍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노동은 단단한 턱으로 물렁물렁한 구멍을 만드는 일
꽃과 잎과 문장의 숨통을 둥그렇게 터주는 일
한 올 한 올 다 끄집어내면 환하고 푸르게 흩어지는 오늘의 잎맥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❻ 두 가지 부꾸미죽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음도 오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절에서 사는 스님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공양간에서는 스님들의 몸을 가뿐하게 만들 수 있는 보양식을 만들곤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녹두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녹두는 봄철 나른해진 몸을 가볍게 만들고 겨울철에 찐 군살도 빠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녹두는 해독 작용은 물론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이 열로 인해 나타나는 피부질환을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타는 것도 예방해주니 봄철 건강식품으로 녹두만한 것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녹두를 푹 삶아 그 물만 자주 따라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녹두는 해독 및 피부질환 진정 효과
팥은 비타민 B1 풍부 소화흡수 도와

팥 역시 이뇨작용과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이 포함되어 있어 입맛 없는 봄철 소화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녹두와 팥을 이용한 수수부꾸미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팥 수수부꾸미죽 녹두 수수부꾸미죽

녹두 수수부꾸미죽

재료: 녹두, 수수, 찹쌀, 버섯, 속배추(양배추도 좋음), 후추, 식용유, 소금, 깨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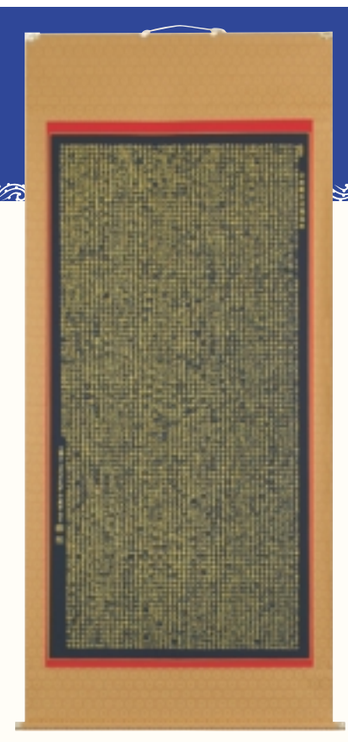
1. 수수를 3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믹서에 넣고 곱게 간다.
2. 버섯과 속배추는 곱게 채썬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먼저 볶다가 속배추를 넣어 볶고 소금, 후추, 깨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믹서에 간 수수를 8.5cm 크기의 동그란 전으로 부친 후 버섯과 배추를 속으로 넣어 반달 모양으로 접는다.
4. 녹두와 찹쌀을 넣어 죽을 끓인다.
5. 수수부꾸미를 한입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녹두죽을 끼얹어 낸다.

팥 수수부꾸미죽

재료: 수수, 고구마, 팥, 꿀, 계피, 유자(금귤도 좋음)

1. 수수를 3시간 정도 물을 담갔다가 믹서에 곱게 간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8.5cm 정도 크기로 전을 부친다.
2. 유자는 껍질을 까서 곱게 채 썰고, 유자 속은 칼로 잘 다진다. 푹 삶을 고구마를 으깨 유자 껍질과 속을 잘 섞는다.
3. 수수부꾸미 속에 유자와 고구마 섞은 것을 넣고 반달로 접는다. 이때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부꾸미의 끝을 잘 눌러준다.
4. 팥을 물에 푹 삶아 죽을 만들고 계피로 향을 낸 다음 꿀로 간을 맞춘다.
5. 수수부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고 팥죽을 올려서 낸다.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 × 가로 78.5㎝ (양면은 14K금봉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리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정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1-1230
011-586-6091

역 학 강 의
(청 명)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문원서
051)523-8425
010-3667-8425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비구, 비구니, 행자모집
범음,범패,명리,철학 배우실분
기도하면서 요양하실 분
<대전 서구 흑석동 무심사>
042)582-3196
011-9725-3196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보수 : 80만원
02)925-33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스님 환영)
▷경남 삼랑진
055)352-6556

대한불교조계종
비구승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서울 경기지역)
(승가대 대학원 휴학중)
010-9609-4445

가족같이 지낼
비구니스님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의정부
016-266-4874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591-8228
042) 271-6249

재가자로서 스님이
되고자하시는 분 모십니다
절에서 머물고자
하시는 분 모십니다
▷효운사
011-856-4578

사무원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도 혜양사)
055)633-2178

종 무 원
구합니다
(PC와 숙식가능한)
▷40세(여) 이하
011-415-55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479-88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5-0005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공기 맑고 아늑한 도량
▷강화도 지역
011-9554-3568
010-2240-3568

조용한 산사에서
천일 기도하실
스님 · 행자스님 ·
처사님 ·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
053)632-4844
053)641-4844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신심있는 부전스님
사무종무원 및 화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사미계 수료시 승가대학 입학지원)
▷경기도 안산
011-324-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
▷60세 이하
033)333-76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보덕사)
052)264-5471
052)254-15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불교대학
055)752-0050~1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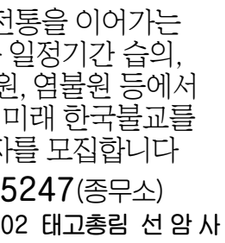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맹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풍수와부동산
라경 층별해설, 88향법, 현공풍수, 양택 등 풍수의 모든 것!!!!!
수강 시간 A반 (직장인반) 매주 목요일 오후7~10시
B반 (오후반)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기 간 3개월 (주1회 총12주)
(2007.4.26~7.12목 4.27~7.13금)
강의 장소 라이프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 종로구 숭인1동 55-6 지하철6호선 4번출구 100M
수강료 30만원
접수 문의 라이프평생교육원 교학처 02-766-1321-2
담당교수 박상건 011-246-1079
(현재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부회장 겸 사무국장)
(한미교육교류재단 겸임교수, 라이프평생교육원 겸임교수)
특전
◆ 라이프평생교육원 수료증 수여
◆ 전국 풍수지리 통일학회 정회원 인증, 회원은 특혜부여
◆ 동방철학연구학회 및 동문 정회원 인증
◆ 미국 LU대학교 교육과정 인증 및 유학 가능
라이프평생교육원
www.lifeschool.co.kr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 : 010-2488-8228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월~수요일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FAX 02) 737-0696 · e-mail : onlymaum@buddhapia.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마산지역
● 법당 : 30평.명부전 : 200평
● 요사 : 12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
● 사정상 최저 급매가격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인천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650평
● 가액 : 1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5억 (즉시법회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스님,법사님,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당안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1)405-4181
010-6321-1639

사찰안내
● 위치: 경북 포항 근교. 서포항 IC 5분거리
● 대지: 약 1천평
● 법당15평,산신각,용왕각
● 요사채 75평 중 50평 심야보일러
● 답사후 결정
016-536-8774

사찰안내
● 위치:김천
● 부지:1,000평
● 법당:12평
● 요사:20평
● 가액:1억2천
● 위치:경기도
● 부지:삼천평
● 법당:30평
● 요사:46평
● 가액: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3동 대구대학앞
● 4층건물에2층,42평,주방, 방1 삼존불, 탱화시설 완벽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시설비 집기일체 1천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1-839-3881
010-9720-99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200평, 건물26평
● 방4, 부엌, 욕실, 창고1,
● 가액 : 5천만원 (절충가능)
010-7218-6958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전 10분 거리
● 총평수 : 3만 3천평
● 종교용지 1530평 + 밭 550평
● 120년 역사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정남향 토목공사 완료
● 좌청룡, 우백호, 주변경관최고
● 양도가 : 4억원
- 목조사찰 -
● 부지 : 1000평
● 건물 : 목조법당 25평(5포7포)
● 요사채 : 목조+판넬 20평+20평
● 위치 : 부산바닷가 영도, 창원, 의령, 밀양, 순천 다량확보
● 가액 : 2억~7억
● 정남향 양지바른곳 바다전망이 좋은 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부터 2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00평, 밭 350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30평(단청 완벽)
● 삼성각 25평, 요사채 27.5평 조립식 20평, 시설완벽
● 석탑, 석불(미륵존불 2분)
● 가액 6억원
016-204-166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시내근교)
● 법당 25평(지장보살)
● 보증금 5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54)975-6976
016-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장호원 근교
● 부지 50평, 건물 흙집 30평,
● 법당별도 방2, 주방1, 욕실
● 가액 : 1,300만원
010-6413-3843
031)642-6413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현세의 김대성 같은분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은평뉴타운 대로변 임야 1만 2천평
● 최고의 북한산 전망지로 석굴조성이 가능함
● 매매가 40억(절충가)
● 석굴암 조성사업에 동업투자도 환영
017-782-52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금정마을 인법당 주차공간
● 대지 62평, 건물 32평 (법당 올 수리), 법당 28평, 산신당 2평(산신, 용왕, 칠성)
● 주지실방 4평, 친견실방 4평, 小실 2칸, 입구방 5평 판넬 (다락 5평 서실 겸 침실),공양간 25평(천막)
● 법당 : 삼존(금불) 아미타3.7, 관음3.5,대세지3.5 (관음호신불 100분) 지장단 : 지장금불2.5, 지장호신불 80분
● 가액 : 1억4천(융자 6500별도). 꼭 사실분만 전화요망
011-842-6123(주지직)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덕산 온천 부근 (도청 이전지 10분거리)
● 부지 : 약 600여평
● 건물(법당 20평), 요사 50평 2층 20평
● 심야전기, 태양열 설치 잔디정원, 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88-6348

포교원(암자) 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 대지 약200평, 법당 20평 1동(삼존불)
● 건평 : 요사채 60평(적벽돌 스라브) 1동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010-5883-5005
011-9877-791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 조립식 15평, 요사1동, 사무실1
● 보증금 없이 연240만원 가액없음, 설비일체 3천만원
● 특징 : 역학 보유자 최적지
010-7156-4855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1-9423-6788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에서 20분거리)
● 대지 200평
● 건물:신축법당 20평 (삼존불,108나한 봉안) 요사채 2동(구옥)
● 가액: 1억 4천만원
※ 급한 사정으로 제가 양도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부동산 사절)
011-486-1275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2동
● 대지 108평
● 1층 58평(법당) 2층 53평(행사실) 3층 40평(주택)
● 농협융자 2억1천5백만원 가액:5억 8천만원
051)751-3400
010-6720-34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현대식 건물
● 부지 100평 건물 180평
● 가액 : 9억5천
※관심있는 분 전화문의바람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2구 167-1번지
● 평수:1036평, 대지:200평
● 건물:요사채+법당=90평
● 법당 40평, 요사채 방7 산신용왕당 40평
● 가격: 5억원(절충가능) 전세도 가능 굿당 할사람도 가능
043)284-776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립공원 내)
● 대지 : 208평(조경완결)
● 법당 목조건물 20평, 삼신각 4평(신건물)
● 황토방 한옥건물 15평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완결,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 절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물좋고 경치좋은
● 전세 및 월세가능
011-575-0396

산속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산사
● 내 절처럼 관리하고, 부처님 전법을 수행하며 사실 스님을 찾습니다
● 대웅전1동, 산신각1동 용용전1동, 요사채2동, 방7칸
● 전세 : 1억 돈이 부족하신분께 월세 가능
033)661-9992
011-422-0086

암자 하실분 명당터 안내
●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옆
●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천봉산과 달맞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 대지:205평, 300평, 456평 건물:40평, 25평
● 7000만원 가격 협의
043)732-8285
010-3545-99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3층 25평
● 삼존불 봉안, 각 탱화 봉안
● 보증금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 법회 가능(시설일체완비)
018-315-0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3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 점양동 호숫가
● 대지 50평, 건평 약45평
● 2층 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41)549-9511
010-3915-8090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 011-820-4617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
(일요일 답사)

포교원 및 철학원 (급) 안내
● 위치 : 서울 목동근접 신정동 (지하철 2호선 1분거리)
● 역세권 대로변. 상가밀집 번화가 시장입구 최고요지자리
● 건물 : 4층건물중 2층(28평)
● 법당 완벽, 방2, 주방1, 욕실.화장실 별도 다용도실 등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2천3백만원(절충가능)
010-6540-4949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 출발 : 매주 월,목요일
◆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 출발 : 매주 수요일
◆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 경비 :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 055)741-9999, 팩스 742-4444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국 개설 인사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국장 청운 합장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납이 금년 3월 29일부로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국을 개설하였기에 대덕 큰스님들과 불자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정진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구독,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남부지국
● 관할지역 : 진주, 남해, 사천, 하동 산천, 함양
● 지국업무 : 기사제보, 구독신청 및 광고접수, 기타사업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국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 전화 : 055)746-9778 / 055)867-0776 011-9554-0544
팩스 : 055)867-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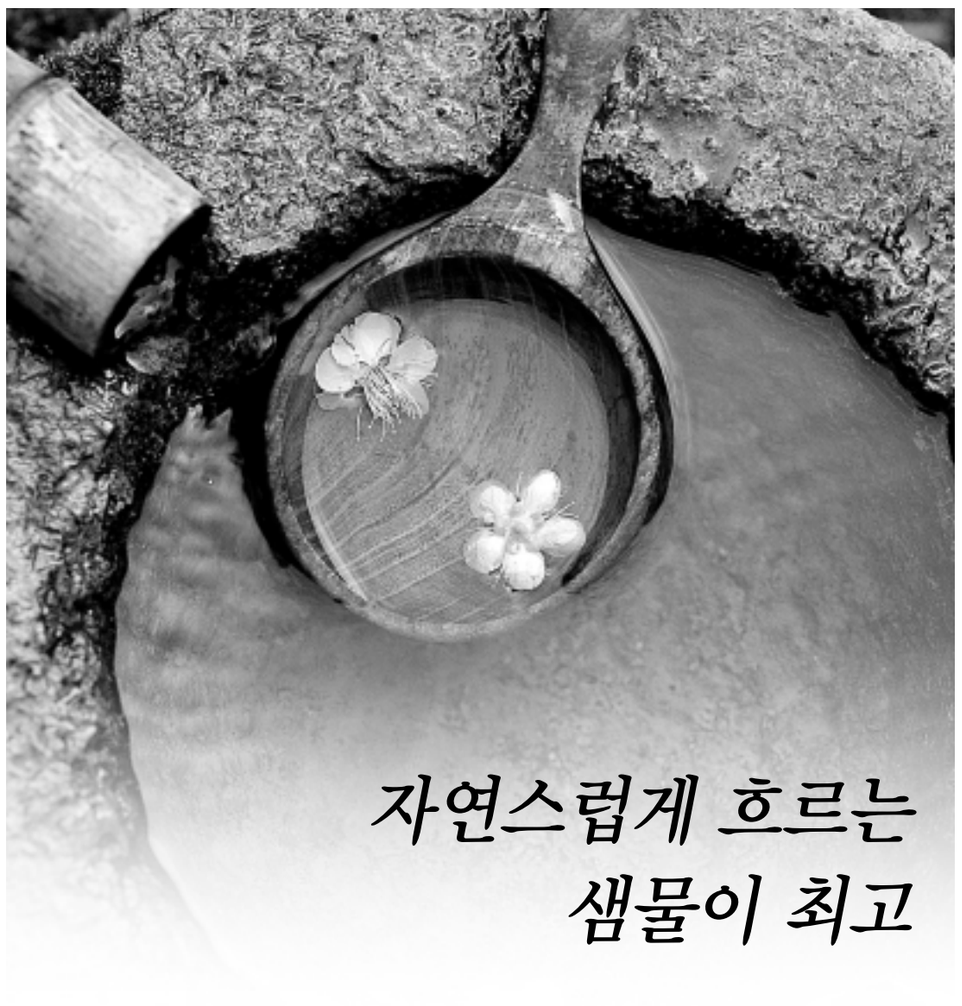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370평,건평 30평
● 신축1동, 구옥 1동
● 국도 인접, 개울물 흐름
● 가액 : 1억3천만원
010-2886-9856
054)873-864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15억 가격절충)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별장식사찰안내
● 위치:이천시 중심가
● 대지175평, 법당30평 1층 요사채 2층 건물
● 가액:3억5천
● 특징:사찰 뒤 산이며 앞은 이천시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새절입니다
● 공찰주지소임관계로 새로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는 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016-510-3455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 종교용지 305평
● 임야 및 전 1700평. 법당 23평
● 산신각 5평, 독신각 2평,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 5천만원
063)625-9992
011-411-0503



자연스럽게 흐르는 샘물이 최고

혜우 스님 전국 산사 '맛있는 찻물' 가려 '찻물기행' 엮어

차(茶)'의 계절이 돌아왔다. 4월에도 눈이 내리는 애꿎은 날씨 속에서도 남녘의 차밭에는 여린 찻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차문화 중흥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문화가 대중화된 덕분에 편의점에서건 백화점에서건 녹차를 구입해 마시는 일이 그야말로 '다반사(茶飯事)'가 되었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데 있어 차만큼이나 중요한 '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직 드문 형편이다. 전남 구례에서 전통 덖음차 제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혜우 스님은 전국의 산사를 찾아 '맛있는 찻물'을 가려 뽑아 최근 <찻물기행>(초롱, 1만5천원)이란 책으로 엮어 냈다.

스님은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의외로 물 때문에 차 맛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국에서 물맛이 좋다고 손꼽히는 곳을 찾아, 실제 차를 우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고 말한다.

수십여 곳의 물을 직접 떠와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직접 끓여 차를 우려마시면서 그 맛을 감별했다. 또 50여 곳에서 떠온 물에 대해 수질 검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용해된 나트륨과 마그네슘, 칼슘 등 소량의 미네랄 성분의 함량에 따라 물맛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차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십 곳 직접 감별 50여 곳 성분 의뢰
샘물, 산골짜기 물, 지하수 順 맛 좋아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차 마시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샘물이 낫고, 그 다음이 오염되지 않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지하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같은 물이라도 바로 받은 물보다는 며칠 두었던 물이 차의 맛과 향을 드러내는데 더 좋다고 스님은 충고한다.

그렇다면 물맛 좋기로 소문난 사찰의 찻물은 어떤 맛일까? 혜우 스님의 안내로 맛있는 찻물을 찾아가 본다.

■ 찻물로 뛰어난 고성 옥천사 약수

고성 옥천사는 '옥천(玉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좋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다. 1648년 샘 위에 옥천각이라는 누각을 세워 샘을 보호하고 있으며, 1987년 7월에는 '한국의 명수'로 선정됐을 정도로 물맛이 뛰어나다. 흔히 이름난 약수에는 철과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차맛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이곳 물은 차를 우려 마시기에도 적합하다.

■ 맑게 스며드는 진불암 샘물

대흥사는 숲이 깊고 흙이 많은 육산이어서 물이 좋은 샘을 많이 품고 있다. 산내 암자 곳곳의 샘물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대흥사 산내암자인 진불암의 샘물이 손에 꼽힌다. 진불암 샘에는 비바람을 막을 문까지 해달아 놓았는데, 물맛이 맑고 입안에 스며드는 것처럼 부드럽다.

■ 깊고 부드러운 봉선사 샘물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에는 샘이 둘이 있다. 하나는 대웅전 뒤 숲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는 샘이 있다. 춘원 이광수가 봉선사 다경향실에 머물 때 이 곳의 물을 길어다 차를 마셨다고 한다. 또 하나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 뒤에 있다. 이 물을 종무소 앞 샘으로 흐르게 해 이웃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마실 수 있게 했다. 물맛이 깊고 부드러워 차를 우렸을 때도 차맛의 깊이를 더하고 향이 그윽하다.

■ 뒷 맛이 깨끗한 지리산 샘물

지리산의 샘들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수준급의 물을 품고 있다. 쌍계사 팔상전 오른쪽에 위치한 두 샘은 '음샘'과 '양샘'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각각의 샘물의 맛이 미묘하게 차이나고, 성분 또한 차이를 보인다. 칠불사 샘물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물맛이 청량하고 탄력성이 있는데, 차를 우려 마셔보면 나무랄 데 없이 뒷맛이 깨끗하고 맑다.

■ 맛 향이 오래남는 보림사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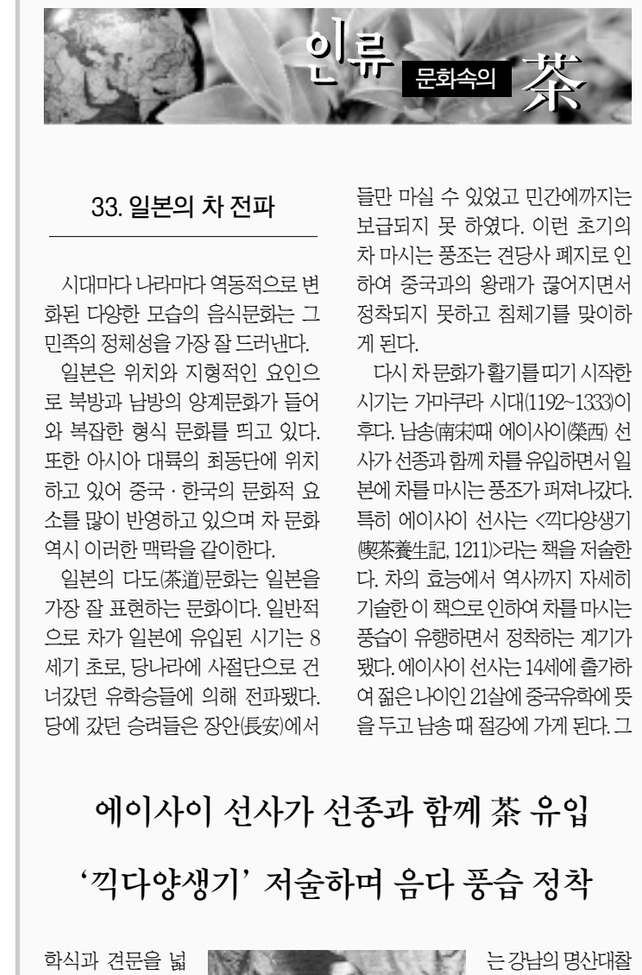
보림사 샘은 절의 뒤곁이 아닌 마당 한 가운데서 솟고 있다. 우물처럼 깊은 것이 아니라 자갈이 깔린 바닥에서 샘이 흐르고 있다.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위해 주차장 한 쪽에는 따로 약수터를 준비해 두었다. 물은 다름 샘에 비해 무거우나 물맛은 입안에서 가볍고 유순한다. 차를 우려 마셨을 때도 찻물이 부드럽고 맛과 향이 오래 남았다. 한국자연보호협회가 '한국의 명수'로 지정하기도 한 곳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_

<가볼만한 전국 차 행사>

행사명	장소	날짜	연락처
제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대만 불광산사	4월 20~23일	02-747-8076
다례발표 Tea Sonata	성신여대 수정관 4층 수정홀	4월 27일 오후 4시	02-920-7511
직지사 차명상 템플스테이	직지사 설법전	4월 28~29일	054-436-6084
문경 한국전통찻사발축제	문경새재도자기전시관 일원	4월 28일~5월 6일	054-550-6393
제33회 보성다향제	보성차밭, 체육공원 일원	5월 4~7일	061-850-5223
김해 가야차문화축제	김해시	5월 15~16일	055-330-3114
제12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하동군	5월 17~20일	055-880-2375
제1회 대구국제차문화축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5월 25~27일	053-768-2516
제18회 전국차인큰잔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5월 27일	02-701-0475
차만들기 체험관광 버스투어	보성군 차밭 일대	5월~7월 매주 월~토요일	061-850-5774



33. 일본의 차 전파

시대마다 나라마다 역동적으로 변화된 다양한 모습의 음식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일본은 위치와 지형적인 요인으로 북방과 남방의 양계문화가 들어와 복잡한 형식 문화를 띄고 있다. 또한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차 문화 역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한다.

일본의 다도(茶道)문화는 일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이다. 일반적으로 차가 일본에 유입된 시기는 8세기 초로, 당나라에 사절단으로 건너갔던 유학승들에 의해 전파됐다. 당에 갔던 승려들은 장안(長安)에서 들만 마실 수 있었고 민간에까지는 보급되지 못 하였다. 이런 초기의 차 마시는 풍조는 견당사 폐지로 인하여 중국과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정착되지 못하고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다시 차 문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1192~1333)이후다. 남송(南宋)때 에이사이(榮西) 선사가 선종과 함께 차를 유입하면서 일본에 차를 마시는 풍조가 퍼져나갔다. 특히 에이사이 선사는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 1211)>라는 책을 저술한다. 차의 효능에서 역사까지 자세히 기술한 이 책으로 인하여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하면서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에이사이 선사는 14세에 출가하여 젊은 나이인 21살에 중국유학에 뜻을 두고 남송 때 절강에 가게 된다. 그

에이사이 선사가 선종과 함께 茶 유입
'끽다양생기' 저술하며 음다 풍습 정착


에이사이 선사목상(木像).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귀국할 때 많은 생활 방식과 차씨, 차 심는 기술 등도 가지고 들어온 차의 개척자들이다. 하지만 이때는 차를 마시는 풍토가 일반인에게까지 성행하지 않았고 귀족이나 승려들 사이에서만 유행하였다.

헤이안 시대(794~1192)는 일본이 당나라를 모델로 국가 체제를 성립하는 시기이다. 귀족의 모든 생활양식이 당나라 풍으로 변모하여 생활에 이용됐다. 음식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먹기 시작했다. 지식인과 유학승들은 당나라에 드나들면서 많은 문물과 불교 경전, 기타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승려들의 왕래로 인하여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주로 먹게 되는 등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음차(飮茶)풍속도 승려들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마시는 방법은 중국 당나라 때와 마찬 가지로 차를 끓여 생강과 양념을 넣어 먹었다. 차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귀족과 일부 승려는 강남의 명산대찰을 유람하면서 선종 사찰에서 지내게 되어 선가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에 대하여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차 산지에서 차 만드는 일에서 마시는 것까지 음차 풍속을 만끽하면서 속속들이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24년을 보낸 에이사이 선사는 일본에 돌아와 자신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책으로 기술하여 차의 보급에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승려인 그는 선종다도(茶道)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처럼 일본의 차는 초기에 승려들의 영향으로 선종에 밑바탕을 이루게 됐고 계율 혹은 수행의 식량이 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이르면서 승려와 귀족들 사이에 차의 맛을 감별하는 모임이 유행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무사귀족 사회에서 호화로운 사교 놀이와 예능으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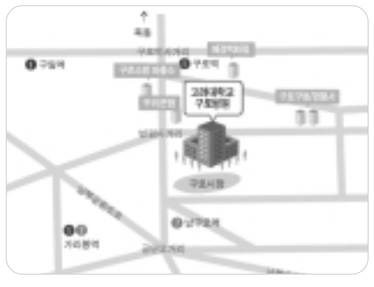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봉 행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법당
개원 및 점안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꽃들이 만발한 봄에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큰스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법당 개원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 많은 환우님들의 병환을 치유하고 심신의 고통을 소멸해줄 커다란 도량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게 불사를 마칠 수 있게 동참 후원해주신 원내외 불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나, 외람되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당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07년 4월 24일(화) 오후 7시
장 소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직원식당(지하 2층)
문의전화 지도법사 지현 011-305-6699
총 무 송상희 011-9204-1349
http://guro.kumc.or.kr/



고려대학교의료원 불자회 회장 대휴, 지도법사 지현 합장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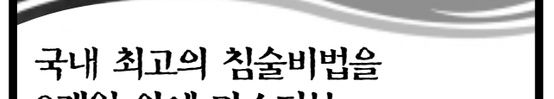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국내 최고의 침술비법을
3개월 안에 마스터!!
당신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강좌명 : 평생건강요법 기초전문가 과정 (3개월)
- 내 용 : 생활건강 침(전통침술)
  경락 및 경혈
  피부미용 침
  다이어트 침
  카이로프라틱(교정)
- 개 강 : 2007. 5. 1 (화)요일

※의료개방에 앞서 미래를 준비 하세요.

본 강좌에 앞서 무료 특별강의를 실시합니다.
- 일 정 : 2007. 4. 27 (금)요일 오후 2 시
- 장 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정문 옆 영화빌딩 3층
- 문 의 : 010-9263-7030

전통침구복지학회
코리아헬스케어아카데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영화빌딩303호 (숙대 정문 옆 건물)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업경대'에 녹화되고 있다

불화 속의 명장면 (26)

지옥세계(상) : 청룡사 명부전 시왕탱 '제5염라대왕도'



그림1 : 염라대왕과 업경대, 청룡사 시왕탱 '제5염라대왕도' 상단부분. 업경대는 생전의 악업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로, 죄인이 가축을 도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림2 : 지장보살의 구원, 본도 중간부분. 염라대왕 심판의 순간에 나타나 망자를 구하는 지장보살.

인간 백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걱정 다 제하면 단 사십을 못 사나니/ 어제 오늘 성턴 몸이 저녁 낮에 병이 들어/ 섬섬하고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덕이나 입을소냐/ 판수 들여 경 읽은들 경 덕이나 입을소냐 …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 비나이다/ 칠성님께 발원하여 부처님께 공양한들/ 어느 곳 부처님이 감동을 하실소냐/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초강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관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제6전에 변성대왕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0전에 전륜대왕/ 열 시왕전 부린 사자 시왕전에 명을 받아 일직사자 월직사자 한 손에 패자들고/ 또 한 손에 창검 들고 오라사슬 빗기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달은 문 박차면서 천둥같이 호령하여 이름 석자 불러내어 어서나소 바삐 나소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슬퍼마라/ 명년 삼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인생 한번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회심곡(回心曲), 서산대사, 조선중기>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삶에의 미련을 미처 못 버리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쳐, 보약이다 · 공양이다 · 어머니 · 부처님 찾고 · 하느님까지 찾아보지만, 어느덧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이다. 시왕의 명령을 받아 나를 데리러 온 저승(일직 · 월직) 사자는 내 앞에 쏜살같이 달려와 오랏줄 들고 거역 못할 운명으로 떡하니 버티고 섰다. 세상은 젊음 찬양 일보이고,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은 아픈 몸 하나에 무색해지는 듯하다.

회심(回心), '마음을 고쳐먹다 또는 마음을 돌려 반성하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회심곡은 조선중기의 고승 서산대사 휴정(1520-1604년)이 지은 장편 가사이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73세 노장의 나이로 승병을 일으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탓에 흉흉해진 민심을 정화시키고자, 착한 일을 권장하는 권선가(勸善歌)로서 이 회심곡을 지어 널리 퍼뜨렸다.

민요 및 상여소리의 일부로도 정착해 전래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이 회심곡이, 당시 민중 사이에 크게 유행했고 또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구구절절 와 닿는 이유는, 그 노랫말 속에 우리의 전통적 생사관이 아주 쉽고도 명료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현세 이익과 망자의 천도를 위해 행해진 이 점찰법회는 그 기록이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어 신라시대 당시 상당히 성행했던 법회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생의 업'이란 마치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와도 같은 종교적 기능을 하여, 그 참회 의식과 수행을 통해 일종의 마음의 정화를 얻는다. 심적 카타르시스가 깊을수록 신자들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청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종교적 체험을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서민에까지 널리 유행했던 '십재일(十齋日)' 역시 <지장본원경>에 그 연원을 두며, 경전에 명기된 10일간 만이라도 경전을 독송하고 계를 지키면 현세의 모든 업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각각의 10일에 시왕과 원불(願佛)의 명칭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재(齋)를 올림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지옥이 대응되게 나열되어, 현세뿐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서의 고통까지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지옥 문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생하게 묘사
지장보살 대지의 신에서 망자 천도 역할로 이동
명부신앙 신들 불교로 포섭되며 시왕신앙 형성

사람은 칠성님께 명(命)을 받아 태어나고, 또 명이 다해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대로 명부세계의 열 명의 시왕 앞에서 차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묘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해야 소용이 없으니 살아생전 넉넉한 마음 착하게 다 쓰고 가자는 내용이다.

우리의 사후관인 극락과 지옥, 그 중 지옥세계를 담당하는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유행한 지장신앙의 3대 경전으로는 <대승대집지장십륜경>(약칭 지장십륜경) <점찰선악업보경>(약칭 점찰경) <지장보살본원경>이 있다. 전생의 선업과 악업을 점쳐, 그 깊은 업장을 씻고 청정함을 얻기 위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천일 간 참회 수행 정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점찰법회'는, 신라시대 원광 법사의 행적에서부터 확인된다.

지장신앙 관련 초기 경전인 <지장십륜경>에서도 알 수 있듯, 대지(大地)의 신(神)인 지장보살은 처음에는 현세의 이익과 풍요로움에 그 역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것이 점점 현세와 내세 양자를 겸해 다루는 역할로, 또 나중에는 내세 즉 망자의 천도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통사적 전이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장보살이 명부세계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이 결합하면서부터라 하겠다. 이미 중국 당 중기에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이라는 위경(僞經)이 찬술되어, 지장신앙과 중국 명부신앙이 결합하게 된다. 대표적 시왕으로는 염라대왕, 태산대왕을 들 수가 있는데, 염라대왕(또는 염라천자)은 본래 인도의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야마천(夜摩天)'으로 이를 음역한 것이 '염라'이다. 또 태산대왕은 인간의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는 중국 고유(또는 도교)의 대표 신인 '태산부군(泰山府君)'으로, 양자 즉 인도와 중국의 고유 명부신앙 속의 신들이 불교로 포섭되어 시왕신앙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림3 : 대애지옥, 본도 하단부분. 지옥의 악귀들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철 방아로, 있는 힘껏 불 절구 속의 죄인들을 찧고 있는 장면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지장보살과 시왕은 지옥의 구원자와 심판관으로, 민중 사이에 더욱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 지금도 사찰의 명부전을 들여다보면, 지장보살(협시하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와 함께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왕이 늘어서는 명부세계의 체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산 사람을 위한 '예수재(預修齋)'와 죽은 사람을 위한 '49재'가 성행하여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예수(預修)'란 '미리 닦는다'라는 뜻 그대로 49재를 미리 닦아 두어, 죽은 뒤 49일 동안 영혼이 중음(中陰 또는 中有: 죽은 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 영혼이 다시 태어날 곳이 정해지지 않고 정착 못하고 떠도는 기간)에서 헤매는 것을 방지한다. 49재(7 · 7일, 죽은지 49일째 되는 날)는 떠돌던 영혼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과도 같은데, 후손들이 열심히 공덕을 들이면 망자의 업이 감해져 그 영혼이 안락한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우리의 대표적 영혼 천도재(薦度齋) 중 하나이다.

죽은 영혼은 49재가 있는 날까지 일곱 명의 저승왕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49재가 끝나도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喪齋), 대상재(大喪齋)에 해당하는 나머지 세 명의 저승왕의 심판을, 총 열 명의 시왕(十王)을 거쳐야 비로소 그 영혼의 길고도 고된 여정이 끝이 난다. (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대행스님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갈 것이 없다!

여러분과 더불어 또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 공식(共食)이며, 공체(共體)며, 공생(共生)이며, 공용(共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죠. 종교라는 자체가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가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이 없으면 부처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참자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은 영령(英靈)들이나 산 사람들, 유체, 무체 이 모두가 차원이 높고 낮은 이런 문제들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고(苦)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한테, 보지도 못하고 또는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는 나 자신도 어떤 땐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몰랐을 때의 내 모습들이니깐요. 내가 언제적부터 알았겠습니까만 지금에 당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답답해지죠.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그렇게 결부돼 있고,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또는 화(化)해서 낳는 거나 습한 데서 낳는 거나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덩어리가 돼가지곤 항상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말 같지만 열 마디 백 마디를 되풀이하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 고통이 삼분의 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삼분의 일마저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되풀이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苦)덩어리,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 금왕지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살과 뼈를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만치 기록된 문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에게서 몸만, 집만 받아가지고 나온 셈이니 그 의식 자체의 덩어리, 고덩어리는 자기가 한 것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짊어지고 나온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또 별 문제인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짊어진 그 종 문서를 태워버리지 못하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종 문서가 있다면 그 집의 하인 노릇을 자식 대대로 내려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다 폐지되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 그대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한 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문서를 짊어지고 나온 데서 옴쭉을 못하니 그거는 종 문서와 한가지라 이 소립니다. 스스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 의식 자체가, 즉 말하자면 수십억 개가 차례차례로 들락거리면서 나고 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고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식구들을 괴롭히고 식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 자체가 수없이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가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으나 그 집 속에는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업식을 받아가지고, 종 문서 즉, 기록 문서를 받아 짊어지고 나왔으니 옴짝달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들이고 내면서 바깥에서는 악의 세균을 끌어들이고 안에서는 안에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나 안에나 그러한 파워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병고를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고, 외로움을 일으키고, 허무감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그 나날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즐거운 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저 걱정, 근심 이런 것만이 주어지게 합니다.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애는 애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것은 생활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을 했지만 여러분은 열 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믿는데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럽니다. 전자에 역대 조사들이나 부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은 부처님께서는 몸을 갈아서 재로 만들어서 뿌렸어도 그 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여러분한테 길잡이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무조건 믿어주셔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현실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생활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랬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죠.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다
> 우주의 어떠한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 마음의 근본이
> 제일 높고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우리 밥해 먹는 솥과 같아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오븐과 같아서 그런 것이 부서지면 새 걸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다가 간수를 잘 해서 잘 쓰면 조금 오래 쓸 거고, 간수를 못 하면 얼른 망가지고 얼른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를 부모한테서 받았지만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굴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면 "그런 건 왜 참견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물건을 받은 것도 잘 보존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으며, 충성하고도 우리 부처님 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착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결부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자식은 부모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또 부모는 자식이 나를 두고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죽는다면 또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질질질질 끌고, 그냥 재산을 다 없애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풍비박산을 만드는 이런 병고에 휘달리고 가난에 휘달리고 이래서 식구가 다 병이 들듯이 '이렇게 된다면 아니 된다' 는 철저한 그런 생각에서 고통을 받죠.

언젠가 한번은 어느 분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럭하고 있죠. "스님, 병명이 영 나오질 않고 모른다고 그래가지고는 몇 달을 기다려 보라고 해서 기다려 봤더니 폐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린 육남매나 됩니다. 그런데 출가는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어서 사셨는데 처음 들어온 새어머니가 너무해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서 이렇게 여직껏 살고 있었습니다만 살다가 이십 안쪽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외숙모 손에 자라다 보니까 무지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죽으려고도 수차례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살다가 고생을 하다가 겨우 인제 집이라도 한 칸 지니고 살 만하니까…, 웬 자식들은 또 제가 모자라서 그랬던지 육남매나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자식들도 기르질 못하고 아내도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눈시울도 찌푸리지 않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전자에 내가 그 사람의 부모가 돼가지고 일찍 그 자식들을 두고 죽은 것 모양 얼마나 딱하고 불쌍했던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불쌍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윗대에서 6 · 25 때 방 안에다 잔뜩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전부 태워버린 거야. 응? 그런데 그 영령들은 비슬비슬하면서 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 집의 방에 잔뜩 와 앉았더라 이거야. 이런 건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선조 대로 그것을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도 죽겠으면 그 집의 방에 죽들 와서 앉았겠습니까? '날 좀 아픈 것 좀 낫게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어디로 갈 데는 없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손자라는 인연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와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놓은 게 없고, 아버지가 지금 시쳇말로 하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아들을 살릴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분네들이 열 분이라 할지라도, 백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되면 이 물그릇에다가 물 열 방울을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면서) 두드러집디까? 그냥 한 컵의 물입디까? 이걸 대답해 보십시오. 한 컵의 물이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그 조상님들을 내 물 한 컵에다가 다 넣으니까 한 컵의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 컵의 물이 되니까 그 방 안은 깨끗해지고 그 불쌍한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고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조상과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처도 조상이요, 조상도 부처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요, 모두가 자기요, 모두가 자기 부모니깐 자기 물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그러한 묘법의 법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속을 뚫어지게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알 수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나투지 못하고 둘 아님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까맣게 모릅니다.

☞22면으로 계속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전大乘經典과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전진도全眞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닦아갑니다. 무원無願 · 무상無常 · 공空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본성本性을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끌어모아, 대도大道로 들아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혜慧는 성性을 밝히는 것이고, 정定은 명命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定과 명命을 닦고, 연후에 혜慧와 성性을 닦아 밝혀나갑니다. 처음에는 명공命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내공으로 갈수록 성공性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열어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14(토), 15(일), 18(수), 19(목) 오후 7:00~9:00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4. 20(금) 오후 7:30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유불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簡易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와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저녁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소림오법, 오음곡 /108식 호흡 유불선 경전 강독

*수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themahayana.org
대승회 지유와 나눔
대 승 회 는
유불선을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 유 와 나 눔 의 모 임 입 니 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암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

수억겁 짊어지고 나온 종문서를 태워버리세요!

☞21면에서 계속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한 찰나의 살림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것은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조리 변덕, 변덕쟁이거든. 변덕쟁이, 도깨비장난, 귀신 장난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空)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야.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는 거야, 그냥. 거기도 걸리지 마라. 생각이 자꾸 나걸랑은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버려두라고. 버려두는 거지.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겁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無體)로서,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대로 짊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도 마찬가집니다. 말 · 뜻 · 행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진실한지를 알게 되면 그냥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따르라 이거야. 왜 따르라고 그랬느냐, 그건 당신네들 주인공 안에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까 병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우환에 대해서도, 괴로움에 대해서도, 허무감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은 고(苦) 덩어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놓고,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인도해주는 내 주인공이 감사하구나.' 생각을 해라 이거야.

여러분이 한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이 오장육부 모든 세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진화가 돼 가지고서는 오히려 보살로 화(化)해서 수호신이 돼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보신(報身)이 돼가지고 보살피고,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돼가지고 보살피고, 약사보살(藥師菩薩)이 돼가지고 보살피고아, 이러니 내 몸은 어느 새 낫는 줄 모르게 다리도 낫고 어느 새 눈이 밝아져서 '이거 이런 줄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끔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비의 칼로써 즉, 자루 없는 칼이 우주 법계를 꿰뚫어서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들면서 나와 같이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내가 돼 준다면, 그거는 전부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어느 분이 날더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지금 노사분규나 또 학생들이 이렇게 벌낫 휘두르듯 하고 미친 듯이 이렇게 날뛰게끔 하고 나라가 위태하게 합니까?" 이러거든. 모르는 그 사람 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조리 체로 쳐서 골라내려면 모든 국민들이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알아야 그때는 스스로 체에 쳐져. 그러니 자기가 나쁘면 국민들을 우롱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나쁘게 된다면 스스로 체에 쳐져서 그냥 밀려서 저 땅으로 내버려지게 돼 있고, 알쭌하게 알맹이, 요 가루는 다 이렇게 체로 쳐지고 아, 그 무거리는 다시 찧어서 먹게끔 또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 솥에 죽을 쑤어서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그 방울방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한 거라. 이 나라에선 이렇게 나오고, 저 나라에서 저렇게 나오고 한 나라에서도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렇게 모두 팥죽 솥에서 팥죽 끓어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팥죽 쑤는 사람, 주걱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냥 불룩하게 올라오는 건 치고, 안 올라오는 건 올리고 흥, 그거 주걱이 다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주걱은 오르는 건 때리고, 안 올라오는 건 오르게 그저 평등하게 하면서, 체로 거르듯이 그냥 주걱으로 휘 휘 저어서 맛있게 끓여서 다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을 때까지는,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람을 불게 해야 체로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이지 이 권도법(權道法)이란, 대권도법(大權道法)이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누구는 부처님이 왜 자기가 태어난 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까? 예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만약에 밥 짓는 솥이라면 그 밥을 짓는 사람들이 솥을 망가뜨린 거지, 부처님이 그 솥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솥을 망가뜨려 봐야 '밥 지을 때 참 필요한 게 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한 그것도 길잡이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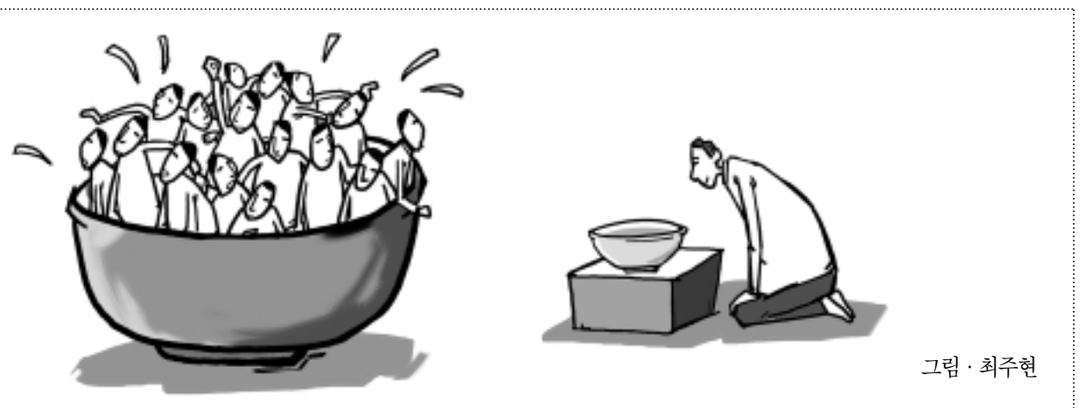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나라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 주관만 튼튼히 세워서 진실히 맡겨나간다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이 당신이지. 응?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다, 우주의 어떠한 것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제일 귀중하고, 보배인 것이고 높습니다. 그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세계나, 은하계나, 어떠한 태양계도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지금 현재에 양 개체가 합류화된다면 전자와 원자, 양자가 같이 혼합이 돼서 중성자가 된다면, 그 위력이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위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승화시키고, 체험하고 이래서 둘이 아님을 깨닫고,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둘이 아니게 나툼을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십이견(六十二見)도 그렇지만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충만하다 하는 것도, 그건 숫자가 아니라 과거심(過去心), 현재심(現在心), 미래심(未來心), 삼세심(三世心)을, 삼세 대천세계(大千世界)를 넘나들면서 자유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다면 지금 태양계나 어떠한 은하계도 그 중성자의 뜻이라면 은하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고 태양계의 법왕이 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름과 안개도 전부 내 통신기가 되고, 바로 내 신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면, 평등하게 하려니깐 아까도 주걱이 하듯 그 주걱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야만이 체로 쳐지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난을 면하게 하고 안타까운 걸 면하게 하고 또는 우리 국내의 재정이나 또는 국내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의 얘기도 다 못하는데 옛날 얘기나 하고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내 몸과 내 가정, 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우주 법계를 탐험도 할 수 있고, 탐험이라는 것은 가고 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 본다면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심안의 눈으로써 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깐 가고 옴이 없이 내가 될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걱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주장자라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주먹을 내밀고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을 썼지만, 옛날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설법을 하고도 시조처럼 끄트머리에 읊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이렇게 변천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명 입었다고 무명옷 입는 타령들만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는 미비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명주로 바지 저고리 해 입었는데 지금 실크로 아주 날씬하게 해 입고들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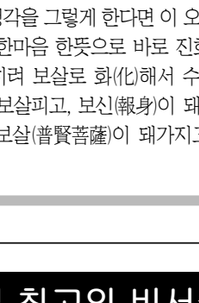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오븐이라면 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오늘은 이 음식을 해 먹고 내일은 이 음식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료가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븐 바깥에서 빙빙빙빙 그 음식 맛도 못 보고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 오븐 바깥에서 빙빙빙빙 이게 음식 해 먹는 오븐이라더라 하고선 빙빙 돌아봤자, 십년을 돌아봐도 이십년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톡톡한 자기의 보배를 가지고 있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질량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소용 닿는 대로, 용도대로 전기도 많이 쓰려면 많이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는 용도가 여러분 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대로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력을 보지 못하고 전깃줄만 보고 전기 들어오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건 믿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전깃줄이 가설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죠. 가설이 된 거, '아이, 저거 뭐 줄만 있고 뭐 전기, 저렇게 하는데 전력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연결이 되고, 생활에서 아주 맞돌아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도 맞돌아가고 있고 생사가 맞돌아가고 있고, 천당 지옥이 맞돌아가고 있고, 살고 죽고가 맞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돌아가는데, 맞돌아가기 때문에 귀신이고 선신이고 따로 없고, 중생 부처가 따로 없고, 천당 지옥이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동서남북이 따로 없고 모두가 그러한 도리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온 그 하찮은 오백년 역사를 또다시 겪지 않고도 우리는 좀더 생동감 있고 좀더 위력 있고, 좀더 승화시켜서 앞으로의 역사를 가져오게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4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육임 최고의 비서秘書
육임직지六壬直指
한글판 번역 해설 출간
▣한글만 알면 일반인도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해당과전을 찾아서 읽어만 주어도 놀라운 적중률.
▣720과전이 모두 해석되어 있는 육임의 필독서 각 과마다 해당되는 모든 필법(백법) 해설수록.
▣육임을 오랜기간 공부하고도 과전해석이 어려운 분은 본서本書를 읽다보면 스스로 과전해석의 비법 터득.
▣본서 구입자에 한하여 전국순회강의시 무료수강 혜택 (본서로 가정에 해害를 입히는 영가靈駕 찾는법, 책보는법 등은 1회 수강으로 쉽게 알 수 있음)
▣육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필수핵심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
▣책의 가치는 수백만원이지만 무단복제방지를 위하여 복사비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책정.
육임직지주해 / 세종출판사 / 소담 昭淡 주해
제1권 갑자순
제2권 갑술순
제3권 갑신순
제4권 갑오순
제5권 갑진술
제6권 갑인순
제7권 부 록


• 제1~6권 각권 28,000원
• 제7권 부록 정가 12,000원
출판기념 특가판매 (배송비무료)
• 계좌 : 농협(조일홍) 815132-52-354445
• 전화 017-844-7100/055)362-279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자 세상보기

법 현
태고종 교류협력 실장

소중한 사랑 위험한 사랑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성경중 고린도서 앞쪽(전서)에 나온다. 아무리 훌륭하고 뜻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 관해 염려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예뻐해 주는 사랑이 없으면 시든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의미가 사라지고 약해진다는 뜻이리라. 사물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보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잡아함>은 여러 짧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의 한 경전인 '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삼백 가마솥의 밥을 다른 이에게 보시하고 낮과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은 소젖을 짜는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 익혔다면, 앞사람이 보시한 공덕은 뒷사람의 백분, 천분, 억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셈이나 비유로도 견주지 못할 것이다."

애욕 즉 사랑의 번민을 떠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설사 독사의 아가리에 남근을 넣을지언정 여인의 몸에 넣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계율을 만들었다는 부처님의 입에서 어찌 저런 간지러운 말씀이 쏟아져 나왔을까 싶지만 가장 부처님다운 말씀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중에서도 원형에 제일 가까운 <잡아함>의 말씀이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을 베풀었다고 해도 잠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을 베푼 것에는 견줄 수 없다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인간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행위는 다른 행위들처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웃음으로, 쓰다듬음으로, 손잡음으로, 다독여 줌으로, 따뜻하게 안아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의 최고 가치는 빠름(速)과 양(量)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사랑의 행위를 왜곡시키고 있어서 큰일이다.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아무렇게나 퍼다 나르면서 수익을 얻는 이들이 그들이다. 안방극장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인터넷에서 왜곡된 사랑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면서 판단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우리의 아들딸들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마음 내키는 대로 찌르고, 베고, 쏘아서 죽이고 상대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성(sex)적으로까지 폭행을 가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미 고등학교 담장을 넘어 중학교 교정은 물론 초등학교 교정에서까지 잘못된 성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원인은 교육의 본질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불성(佛性)과도 같은 위대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서구에 토대를 둔 이들의 잘못된 교육체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원인도 찾고 대안도 찾아야 할 것이지만 부처님의 후예로서 고민하고 부처님께서 여러 해결책을 당시의 인도사회에 제시하셨듯이 요즘의 우리사회에 제시할 대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 적게 자극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웃으며 받아들이는 사랑의 방법을 활용해야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이들이 누구나 행복한 사랑이 될 것임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더구나 사랑은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맑은 영혼에게 주어야 할 것은 사랑이지, 사랑이지. 아무리 꼭 안고 오래 걸어도 전혀 느낄 수없는 무게를 가진 맑은 영혼 가진 이여 그 맑은 영혼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오로지 사랑으로만 대하라.

불자의 눈

어린이 포교 '부끄러운 현실'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준비되어야 현실이 된다. 막무가내로 손놓고 있는데 누가 교육하여 '내일'을 만들어 주겠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계의 어린이 포교는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만 컸지 현실적인 준비에는 소홀한 양상이다. 내일의 희망을 심는데 소홀하다는 얘기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팀이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1717개의 사찰 가운데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은 180곳에 불과했다. 1할의 노력이 미래 불교를 얼마나 담보해 줄지, 결코 희망적이라 말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교구본사도 절반이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구본사는 지역불교 운동의 중심이다. 때문에 포교와 복지 등 불교의 사회화 운동에 가장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곳이다. 교구본사가 어린이 포교를 실천하지 않으면 말사들에게도 어린이 법회 운영을 권유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번 설문 조사는 현재의 모자람을 들춰내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다.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이제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의 희망심기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현실을 보다 양명하게 들춰내어 보다 큰 틀 속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종단적 그림 그리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새싹포교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리라 믿는다. 이번 설문 조사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현실을 알았다는 것은 도약할 방향을 알았다는 뜻도 되니까.

전통사찰 이중규제 법령 철폐 마땅

최근 서울 인근의 한 전통사찰이 경내에 한 평 규모의 안내와 기도용품 판매용 가건물을 지었다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놀란 사찰측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풀긴 했지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었다. 법령에 의한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 전통사찰도 경내에서 신행활동을 위한 건축의 신축은 꿈꿀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두 사찰의 얘기가 아니다.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국가법들이 전통사찰의 자유로운 신행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전통사찰들이 그동안 가슴앓이 해 온 일들을 풀어 낼 담론 형성의 좋은 마당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는 불법"이라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물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도 충분히 개진 됐다.

전통사찰은 수행과 신행의 공간임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의 자연환경과 학습환경 등을 요구받는 공공의 공간이다. 그런 공익적 공간이 중첩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입법기구는 합리적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7. 공공영역의 종교오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자유·평등가치 구현의 '기준선' … 편향·특혜 사라져야

미래사회는 물질과 효용성보다 다양성, 행복 등 비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탈물질·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또 다양한 진리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시대에 여러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사회는 그 나름대로 인류문화에 기여할 자격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반갑고 일리 있는 얘기이다.

그러나 세계사상 유례없이 급성장한 기독교의 편협성과 배타성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여러 종교들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용옥은 최근 한 교회에서의 설교 중 "기독교는 질시와 배타와 반목의 좁은 패거리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랑'이란 간판을 내걸고 '미움'을 가르쳐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게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학연'과 '지연'에 의한 갈등으로 멍든 우리 사회에 '종연(宗緣)'까지 얽혀서 특정종교 또는 그 종교인들만의 '끼리끼리' 분위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면 얼마나 살기 피곤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투철한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종교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이 생겨 세상사는 데 도움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어떤 일에서든지 종교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줬으면 하는 기대까지는 하지도 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굳이 탓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룰이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판에 실린 특정종교 홍보문구.

첫째, 종교적 표현이나 행위는 다른 종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 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일단 밖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장도 존중해줄 마음자세이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불쾌할 정도의 종교적 언행과 차별을 한다면 함께 사는 기본이 안 된 경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그저 한 개인의 열정적인 종교성향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다수가 자주 그런다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공공영역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공공영역은 사회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 신념이나 이익을 위해 독차지할 수 없도록 합의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마저 종교로 오염시킨다면 어디 가서 숨 쉬고 살 곳이 있겠는가.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만큼은 골치 아픈 종교문제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다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자 자유·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사회를 꿈꾸는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소망인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공공영역에서의 종교 관련 사회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 그리고 특정종교인들만의 선별채용 등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실상은 어떠한지, 왜 그러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운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나 법률적 판단으로 약자를 보호해줘야 할 사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지, 종교사학은 교육기관인지 선교기관인지,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특정 종교인들이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정치권의 비호 아래 특정종교가 우대와 특혜를 받아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왜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편향적 발언을 일삼는지, 종교가 지나치게 권력화 된 것은 아닌지, 일부 정치사회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종교선전에 이용하려는 소위 '성시화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무원·교사·국가대표·방송인·연예인 등 공인의 종교적 표현의 성격과 한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공공행사에서 특정종교 의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등 정교유착으로 인한 헌법정신의 훼손과 사회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사회구조적인 시각에서 고민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를 특정종교가 독점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만 있으면 공공장소를 종교광고판으로 도배해도 되는 것인지, 국공립시설을 특정종교 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시민의 동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선·포교행위는 오염 수준이 아닌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다원종교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소한 공공영역만이라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일은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지도자들의 책임이며, 자유선진국가를 후세에 넘겨줘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북부 – 포천,연천,동두천,파주 일원
- 대전 : 전지역
- 충남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보령 일원
- 경남 : 마산,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목포/순천,여수/전주,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격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

도선국사 향훈 봄꽃처럼 가슴에 피다

108산사순례기도회 영암 도갑사서 봄 만끽 … 농산물장터 군부대에 초코파이 보시도





▲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이 보시한 초코파이 5만개를 선묵혜자 스님과 월우 스님이 기도회원들과 함께 군용트럭에 싣고 있다.

▶ 우리나라 제1의 선종사찰이란 의미의 글이 현판에 새겨진 도갑사 일주문에 들어서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 사진 맨 왼쪽부터 월우 도갑사 주지 , 선묵혜자 도선사 주지스님.

▼ 대웅전 중창불사가 한창인 도갑사 경내에서 기도삼매에 빠져있는 3000여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



산세가 빼어나고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 '달 뜨는 산'이라는 뜻을 지닌 월출산은 그 이름처럼 달이 뜨는 모습이 아름답다. 때문에 예부터 이 산에는 늘 '월(月)'자가 붙어 다녔다. 백제 · 신라 때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 조선시대부터 월출산(月出山)이라 불렀다. 이 산자락아래 신라 4대 고승중 하나인 도선국사가 창건한 대가람이 버티고 서 있다. 전남 영암 도갑사다. 도갑사는 현재 450년된 대웅전 계단석이 발견돼 높이 18m의 대웅전 불사가 한창이었다. 4월 12 · 14일 양일간 그곳에 달이 아닌 3500여 불자들이 떴다(?). 달보다 더 눈부셨다.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다. 많이 소멸했지만 그래도 산사 주변 곳곳서 만나는 봄꽃들이 순례객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다.

일주문까지 마중 나온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영암은 지금 갖가지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이런 호시절에 108산사 순례기도 회원들이 저마다 발원을 간직한 채 도갑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선국사가 세운 이 도갑사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서울 도선사와 함께 만들어진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갑사는 도선사의 종갓집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의 묵은 때를 벗겨내십시오."라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서봉남 부군수는 "영암지역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암군은 현재 도갑사 대웅전 중창사업과 도선국사 3차 기념사업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군수는 "영암지역 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순례객 개개인마다 영암의 특산물인 달마지쌀 1kg씩과 주먹밥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덧붙여 순례객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선묵혜자 스님도 법문을 통해 "도선국사의 향훈이 서려 있는 이 도갑사에서 각자의 소원을 지극히 발원하며 마음을 청정히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선묵혜자 스님이 서봉남 영암 부군수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부군수는 영암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구입해 김일태 군수를 대신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순례단에게 전하기도 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선묵혜자 스님으로부터 순례에 참가했다는 일종의 증표인 도갑사가 새겨진 염주알을 도선국사의 비각 앞에서 한 개씩 받았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온 김일숙 보살(53)은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이 도갑사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정진을 하니 세속에서 찌든 근심걱정의 묵은때가 말끔히 지워진 것 같다"고 환희심에 가득찬 표정을 지었다.

순례단은 기도순례가 끝난 뒤 절마당에 마련된 임시 농산물장터에서 영암 지역 농산물 구입운동도 함께 벌여 지역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은 영암 특산물인 달마지 유기농 쌀을 비롯해 무화과 잼과 떡, 호박고구마, 더덕고추장 등이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 자리에 지역농산물 홍보대사로 나온 김일태 영암 군수의 부인인 임향숙씨는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줄줄 몰랐다"며 선묵혜자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순례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군법당 초코파이 보시행사도 열렸다. 선묵혜자 스님은 광주 호국관음사 정윤성 법사에게 장병불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초코파이 5만개를 전달했다.

108사찰 순례기도회는 5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신륵사를 방문해 아홉 번째 기도순례를 봉행한다. 한편 모든 순례기도 일정이 끝난 뒤 지난달 발족한 108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 회원 120여명은 도갑사 경내를 돌아다니며 환경미화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혜자 스님 언론인련 특별공로상 받아

선묵 혜자 스님은 4월 9일 대사회적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특별공로상은 108산사순례 기도회를 통한 농촌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